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심에 감사하며 그 미션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10b)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2월 5일 (토) 제 156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종교 자유’ 위해 미국으로 온다!

CT, 2003년부터 미국 재정착한 지구촌 크리스천 난민통계 및 시리아 난민수용 전망 보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참사에도 시리아 난민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반기를 든 미국의 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늘고 있다. 미연론에 따르면 최근 미시간·앨라배마·텍사스·아칸소·일리노이·인디애나·루이지애나·미시시피·매사추세츠·애리조나·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뉴햄프셔·플로리다·메인 주 등 미국 50개 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6개 주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동참하는 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용의자 중 일부가 유럽으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침투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민주당이 집권한 뉴햄프셔 주를 제외한 15개 주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집권한 곳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6개 주의 주지사들은 한결같이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각 주로 유입될 시리아 난민 중 테러단체와 연계된 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 거부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연방정부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수용과 각 주로의 분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파리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리아 난민 수용 논란에 맞춰 지난 2003년부터 미국으로 정착하기 위해 떠난 이른바 “오늘날의 청교도(Today's Pilgrims)”에 대한 통계를 보도하고 있다(Here's Where America's 338,000 Christian Refugees Come From: Evangelical, Catholic, Baptist, Pentecostal, and other resettled believers hail from quite different countries).



난민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요즘 기독교 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재정착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허용 여부와 함께 맞물려서, 미국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유입된 크리스천들의 비율이다.

난민수용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미국에 재정착한 크리스천들은 지구촌 각지에서 338,441명이다. 전체 재정착 난민이 762,000명으로, 크리스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4% 정도에 이른다.

이들을 국가별, 교단별로 분류해보면:

△2003년부터 재정착하기 시작한 “크리스천들”은 거의 180,000명에 이른다. 과반수 이상이 미얀마/버마(96,531), 그리고 이라크(25,128), 이란(19,968), 라이베리아(12,335), 부탄(8,216)에서 왔다.

△캐톨릭 난민들이 57,178명으로 재정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쿠바(15,805)와 이라크(14,580)가 거의 30% 이상으로, 미얀마(4,973)나 콩고(4,496) 그리고 수단(3,988)보다 압도적이다.

△개신교인 난민 숫자 14,754는 훨씬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을 특정 개신교 교단에 속했다고 말한 난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미국에 재정착한 개신교인들은 콩고(5,203)가 가장 많고, 베트남(2,393) 그리고 수단(1,458) 등이다.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난민들(2,677) 역시 국가별로 분류된다.

과반수 이상이 쿠바를 떠나왔고(1,422), 수단(237), 우크라이나(196), 콜롬비아(148), 그리고 라이베리아(108)에서 왔다. △전체 크리스천 난민들 중, 10%는 오순절 교인들이다(31,778).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동유럽 출신으로, 33% 정도가 우크라이나(11,067)에서 왔고, 콩고(6,222), 브룬디(3,985), 몰도바(2,102),

베라루스(1,831)에서 왔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23,247) 중, 미얀마(5,980)와 우크라이나(5,937)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몰도바(4,043).

△감리교인들 중 많은 난민들은 아프리카 출신(3,305)이다. 콩고(1,007), 브룬디(987) 그리고 라이베리아(535)에서 왔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Christianbook.com, 마크 러니어 저서 “법정에 선 기독교”
통해 하나님 존재 증명과 사역 소개

마크 러니어(Mark Lanier)는 미국 변호사들 중 탑 클래스에 속한 크리스천이다. 그는 ‘러니어 로펌’을 설립한 변호사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면 피해 소송과 미국 최초의 바이옥스 재판을 비롯해 수많은 굵직한 사건들을 재판정에서 다뤘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9년 연속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도 그의 활약상을 소개했으며, 2013년에는 ‘탑클래스 집단 소송 변호사’로 뽑혔다. CNBC와 폭스 뉴스에 자주 출연하고, 투표를 통해 ‘텍사스 슈퍼 변호사’로 선정될 만큼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성경학자이자 기독교 강연가다.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신학도서관인 ‘러니어 신학도서관’을 설립했고(www.LanierTheologicalLibrary.org), ‘성경문맹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며(www.biblical-literacy.org), 매주 챔퍼넌포레스트침례교회에서 성경문학을 가르친다. 3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연구해온 그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사건들을 다룬 경험들을 통해,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허점을 공략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명쾌한 변론으로 기독교 신앙이 타당함을 증명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러니어의 사역을 “법정과 인생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재치 있고 매력적인 사역자로, 마크 러니어는 기독교 신앙이 믿을 만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마크 러니어는 미국 법조계에서 진실을 찾고 수호하는 일로 나무랄 데 없는 경력을 쌓았다. 이제 그는 법조인의 눈으로 성경을 변호하면서(Christianity on Trial: A Lawyer Examines the Christian Faith), 신앙이라는 근본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조인 눈으로 성경 변호... 최후진술 후 질문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가 하는 일의 이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기독교는 참 편협한 종교야.”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논리를 따지며 균형을 원한다. 하지만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식의 ‘뻘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임은 확실한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낼 자신이 없다. 특히 기독교에 호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때로 나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우리는 한 재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개인 금전화 사전에 막아야 한다!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복음서 이야기
박시경 박사



14면
인터뷰
유태용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

16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4): 2015년 한 해를 보내며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2015년 올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삶을 영위해갈 수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곤 합니다. 필자가 사는 북가주 지역의 한인교회들에서도 동상에 문제로 폭풍이 몰아닥쳐서 지역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두 장로교회들이 결국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담임목회자들이 교단의 동성에 지원 정책에 반대해서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몸담고 있던 사랑하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힘겹게 교회 건축까지 해서 마련한 성전을 버리고 당장 예배드릴 처소를 찾아 떠나야만 했던 그 심정을 짐작해볼만 합니다. 물론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교인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남기로 했다고 오명의 소리조차 듣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교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도 지은 성전을 왜 포기하고 떠나야하는지 항변하는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방황하는 연약한 부평초 교인들을 흡수해서 교인 수를 늘려볼까 하는 절박한 이웃 교회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이러한 영적 공격에도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최근에 성전을 구입하고 입당 준비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와 이번 일로 등지를 잃은 교회가 연합하려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 주일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두 교회가 정식으로 연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두 기업이나 단체가 합병하려해도 무수히 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두 기업의 재정상태에서부터 리더십의 공존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단합과 직무들을 정리 조정하는 결코 쉽지 않은 난관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하는 작업도 끈질긴 인내와 대화의 시간을 요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연합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며 교인 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인고와 기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목회자나 지도자들 몇 명이 강제로 관철시키려할 때는 수많은 양들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어려운 인생과 사역의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보이고 어려서어 보이는 앞길이기에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나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후시 잘못되어도 하나님 뜻으로 선택했으니 내게는 잘못이 없고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한다는 책임전가의 불순한 심리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회개도 해봅니다. 신약성경에 30여 번이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텔레마'가 왜 영어로는 딜레마(교착상태에 빠짐, 두 결정 앞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해 하는 심적 상황을 일컫는 말)로 변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간의 뜻으로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힘들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선하신 권 운전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급진화 사전에 막아야 한다!

뉴스위크, 퀴리엄재단 선임연구원 니키타 말리의 IS 격퇴전략 소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전면적인 지하디스트 붐기'를 경고했다.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로 그 붐기가 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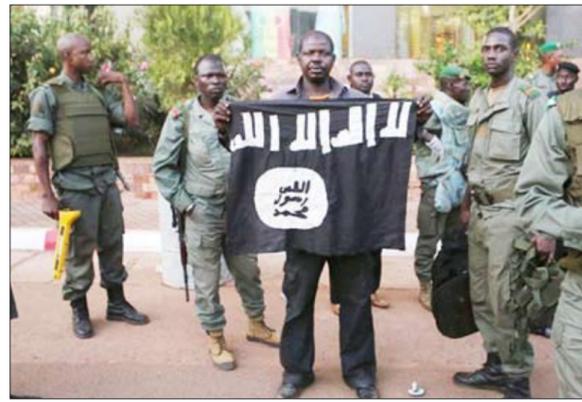
붐기는 이념을 신봉하는 핵심 지지 세력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선 그런 세력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파리를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은 전부 평범하게 살다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투신해 지하디스트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IS에 포섭된 이들은 시리아에서 훈련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와 범행을 계획했다.

이스마일 오마르 모스테파이(29)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13일 밤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에 난입한 용의자 중 1명(자폭했다)으로 지목된 그는 이전엔 테러리즘과 아무런 관련 없던 알제리계 파리 시민이었다. 그가 다니던 이슬람 사원의 관계자는 "IS가 직접 파견한 '방문 이맘'에 의해 급진주의에 몰들었음"이라고 귀띔했다. 모스테파이는 다섯 살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2013년 말 가족을 버리고 시리아로 건너가 IS의 훈련을 받았다. 그의 옛 이웃들은 "평범한 가정의 상냥한 청년이었다"고 돌이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파리 테러 발생 하루 전인 11월 12일 미국, 영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IS대원 무함마드 엠와지 역시 영국 런던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이슬람교도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급진주의자로 전향했다. '지하디 존'으로 불린 엠와지는 검은 복면 차림으로 IS가 외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에 즐근 등장에 서방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급진화시켰으며 언론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What Makes a Jihadi?). 뉴스위크지가 반극단주의 싱크탱크 퀴리엄재단 선임연구원 니키타 말리의 IS 격퇴 전략을 소개했다.

유럽의 성난 젊은 무슬림 세대에 지하디즘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종, 종교 차별과 따돌림도 한 원인이자. 폭탄테러가 발생한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두 나라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그들이 이슬람주의 선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심히 우려된다. 더 격조스런 점은 IS의 공격으로 그들을 향한 증오와 비난이 증가하면 그 선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급진화의 기회도 그만큼



탈급진화 과정엔 재통합 프로그램 필수 IS 메시지 반박, 불만이 폭력화 안되게 테러 희생자는 국적과 종교 다양 기억

는 '증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수십만의 중동 출신 젊은이가 이미 유럽에 정착했다"며, "이들이 이번 테러로 차별받는다면 극단주의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IS는 테러에 놀란 유럽이 문을 걸어 잠그길 바란다. 그들은 갈 곳 없는 분노한 난민을 IS 전투원으로 만드려고 한다."

파리 테러는 규모와 정교한 조율을 고려할 때 알카에다 같은 단체의 과거 공격과 유사하다. IS가 선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듯이 폭력은 서방에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 사용된다. 서방이 드론 공격으로 지하디 존을 죽이고 영토의 일부를 빼앗아가도 IS는 십자군 프랑스(Crusader France, 과거 무슬림을 겨냥해

전쟁을 벌인 십자군에 프랑스 기사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사실에 빗댄 표현)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확장되는 영토와 '유토피아'가 건설하라는 점을 과시한다. 그런 규모의 공격으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IS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만이야. 지하디스트는 불만과 이념의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그 이념은 극단주의 단체 가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11·13 파리 테러 후 IS에 대한 서방의 보복은 '서방이 사악하며 IS는 서방과 전쟁 중'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IS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종파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의 시신 부근에서 시리아 여권이 발견되자 시리아 난민을 향한 증오가 분출하면서 그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문이 증폭됐다. 이런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분노와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차별로 치달으면 테러단체의 이념적 요소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의 대치는 지양해야 한다.

이제 프랑스는 탈급진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의 급진화를 사전에 막는 것이 이미 급진화된 개인을 되돌리기보다 훨씬 쉽다. 급진화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상황 배제, 종교 교육의 결여 같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탈급진화 과정에는 재통합 프로

그램이 필수적이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극단주의 이념의 결합을 설득력 있게 알려줄 수 있는 멘토나 급진주의 경험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L.A. Office		· N.Y.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323)665-0009(대) · Fax:(323)665-0025(광고국)		· Tel:(718)886-4400(대포) · Fax:(718)886-4424(편집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la@chpress.net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교 자유' 위해 미국으로 온다!

(1면에서 계속)

-메노나이트 교인은 불과 5명으로 수단에서 3명, 소말리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1명씩이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특히 유럽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침을 제공해준다(우선순위는 없다).

1. 재정적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

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 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적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 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함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반면,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도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미국은 파리 테러 이후에도, 시리아 난민을 1만명 더 받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결국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해서는 안되며, 특히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오늘날의 종교도들에게는, 미국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분도다.

원로칼럼



박준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가정목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중)

신앙의 계보를 잇는 길

그런 면에서 필자는 행복한 목회자였다. 필자의 부모님은 일찍 주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섬겼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 세 분의 누님들과 매형들은 장로와 권사, 집사로 교회를 섬겼고 그 후손들 가운데 목사가 되었거나 신학수업을 끝낸 사람이 12명에 이른다.

필자가 결혼한 것은 1966년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미혼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에는 목사는 이발사 다음이었다. 인기 있는 직업군에 속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구수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

결혼 할 당시 필자는 총신교회 전도사였다. 월급은 몇 사람의 성금으로 모았고, 사택은 갈월동 쪽대기 마을 판잣집 단칸방이었다. 그리고 총각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1966년 1월 1일 자정예배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담임목사이신 고 정운상 목사의 주례로 약혼식을 거행했다. 짐작하건대 수많은 커플 가운데 꼭두새벽 약혼식을 치른 사람은 우리네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해 6월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주례자는 고 정운상 목사가셨고 신혼여행지는 온양이었다. 완행열차 편으로 내려가 2박3일 후 돌아와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열악한 생활여건과 가난을 마다하지 않고 결혼해준 아내, 작은 병치레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에 최선을 다해준 아내, 그리고 3남매를 탈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준 아내, 생각할수록 고맙다.

아내는 최고도적 신앙인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야 상처를 주는 일을 금기로 여긴다. 나서는 것을 피하고 남편 뒤에 머물며 내조에 최선을 다했다. 35년여 세월 동안 묵회 파트너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교회 공식 상에 나선 일이 없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소 리 소문 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다. 남편과 자식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줄을 놓지 않았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공이 쌓이는 내조가 산처럼 다가서고 감사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딸 둘이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셨다. 바르고 곱게 자란 것을 늘 감사드린다. 큰 딸과 둘째 딸은 풀리신학교에서 신학수업을 마쳤고, 큰사위는 풀리신학교에서 선교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다. 둘째 사위는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섬기면서 레아NGO 대표로 동북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 역시 바이올리대학교를 졸업한 후 풀리신학교에서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3남매가 필자의 뒤를 따라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이 어렵다.

신앙교육을 위한 지침

아이들이 자랄 때 신앙관리를 위해 삼가거나 주려한 몇 가지 지침이 있다. 첫째, 아이들이 듣거나 보는 앞에서 부정적 사건이나 교인들에 대한 비난이나 평론을 하지 않았다. 목회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만은 일절 그네들을 비난하거나 대화에 넣지 않았다. 목사의 자녀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회 사건이나 교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착색시킨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부가 기분 나쁜 사건들을 얘기하다가도 아이들이 들어오면 곧 바로 다른 화제로 바꾸곤 했다.

둘째, 책임을 가르쳤다. 자기 할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맡은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철저히 옳고 그름, 잘한 일과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당근과 채찍을 주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당사자만 안방으로 부른 뒤 방문을 닫았다. 왜 이 일이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본인이 긍정하고 시인하도록 했다. 그리고 몇 대의 매를 맞아야 하는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결정이 끝나면 두 손을 펴게 한 뒤 필자의 손으로 아이의 손바닥을 때렸다. 내 손바닥도 아팠고 아이의 손바닥도 아팠다. 그렇게 한 것은 책임과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1면에서 계속)

성경학자이자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손꼽히는 마크 러니어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는 권위 있는 증인들을 소환해 증언을 들려주고, 방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한다. 이 세기의 재판에 참여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변호사의 최후 진술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툭툭 털어버리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을 증명한다고? 그런 일을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맡겨도 괜찮을까? 전문가들이 이미 세세하게 다른 주제에 변호사가 무엇을 더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면 변호사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를 세운 뒤 절차에 따라 진실 여부를 가리는 일에는 변호사가 전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일을 맡았다고 나선 특급 변호사가 있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9년 연속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 내셔널법률저널이 미국 10대 변호사로 선정, 뉴욕타임스가 미국 최고의 민사재판 변호

사로 선정... 이만하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게다가 그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신학도서관인 '러니아신학도서관'의 설립자이자 매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다. 과중한 업무로 며칠 밤을 새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금세 눈빛이 반짝거리며 만큼 열정이 가득하다. 그가 소환하는 증인들도 예사롭지 않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왕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석학들까지...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한 재판 아닌가?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 중에는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밖에 있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직접 증거), 건물 안에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이 젖어 있다면(정황 증거)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그분의 존재는 정황 증거로 풀어나야 한다. (창조주라는 분이 단지 피조물의 금금증을 해소해주려고 모

습을 드러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러니아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하나님의 속성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과학적 원리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규명해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허점을 들춰낸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기반으로 그는 우리의 삶과 신념이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개념에 맞춰져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해답임을 증명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참된 속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실제와 진리, 옳고 그름의 기준, 자유 의지와 선택의 문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천국과 영생을 논리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분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한 은혜와 영생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제 최종 판결은 이 책을 읽는 배심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개인 급진화 사전에 막아야 한다!

(2면에서 계속)

학교나 사원, 교도소에서 이런 대화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으로 취약한 젊은이는 그런 곳에서 서방을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게 될 위험이 크다. 극단주의 선전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급진주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한 사이트에서 금지하면 다른 사이트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보다는 사이버 공간을 긍정적인 콘텐츠로 가득 채우는 게 효과적이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나 IS 치하의 현실이 실제로 어떤지, 그들의 신학적 오류가 무엇인지 폭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에 통합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공간도 필요하다. IS는 가상만이 아니라 실제 공동체를 만들어 구원자들이 서방을 공격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칼리프 제국 건

설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IS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불만이 폭력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 공격의 희생자는 국적과 종교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이런 시기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IS에 맞서야 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3(Fri)-16(Mon) 2016
-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Yul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내 친구 김 목사

39년 전 그 친구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넓은 통 바지에 높은 구두를 신고 장발 머리에 다 그 당시 마지못해 패션의 완성을 주는 스키프 포인트까지 한 그 친구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신학 대학을 입학하고 첫 번째 MT장소는 일영이었습니다. 서울 역에서 기차를

놓쳐 어떻게 MT 장소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뭐 저런 녀석이 신학교에 입학했지? 완전 노는 애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대 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비쳐진 친구의 모습은 불경건하기 짝이 없

었습니다. 기차를 놓친 우리는 주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으며 각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함께 하면서도 도무지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해나 신앙생활의 대해서도 전혀 상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무관계로 오랫동안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목회의 길을 걷느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친구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만나 신앙을 알게 되었고 신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 중에 간증을 하였습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친구의 신학 입학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은 남원에서 운수업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그는 학업은 뒤로하

고 매일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촌 형이 찾아 왔습니다. 사촌 형은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계셨는데 도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도 무지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촌 형은 그 친구의 상황을 재빨리 눈치 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시골에 그대로 두면 대학을 갈 수 없으니 서울로 유학을 보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시면 아이를 거두어 태권도를 가르쳐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시골에 두느니 그라도 사람을 서울 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태권도 특기생으로 들어갔으나 각종 대회를 다니느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지나 대학에 입학 때가 다

가왔습니다. 그의 사촌형은 시골에 빠졌습니다. 그 실력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권도 태권도 특기생으로 보내기에는 키가 작아서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하였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통해 신학 대학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촌 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에 그를 서울에 있는 신학 대학에 넣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갈 것을 그렇게 권유했던 것이 핑계 지 핑계로 교회를 몇 번 밖에 가지 않았던 그였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기다리며 학비를 보내주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리며 신학 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관계서류를 신속히 만들어 가까스로 입학하였습니다. 입학을 한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학점을 위해 전도사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교단 교회를 소개받아 찾아가

다고 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몇 마디 질문을 하더니 당신을 전도사로 둘 수는 없다고 하여 그럼 평신도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였답니다. 봉사하는 동안 은혜를 받아 신학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누리며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날이후에는 여러 사연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가, 의사가, 은행가가, 기술자가, 학자가, 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척박한 미주 지역에서 순종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시선은 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작은 목회자들을 감싸주고 용기를 준다면 저들은 아름다운 목회로 화답할 것입니다. 저의 친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푸 / 른 / 초 / 장

차균규 목사
(순복음 부천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시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지를 깨끗케 한다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는 진딧물, 벌레, 병든 가지 등을 제거하고 악을 주어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란과 도적과 거짓증거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들이 바로 가지인 우리들을 죽이는 진딧물이고 벌레인데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우리 속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토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가지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2.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쓸데없이 버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1)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

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풍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에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삶은 단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재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고 말한 바울의 고백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케 하여서 가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는 진딧물, 벌레, 병든 가지 등을 제거하고 악을 주어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1)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죄로 더럽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더럽힘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는 절대적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함을 입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2) 회개하여 죄를 토해 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상과 사탄을 섬기던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의 생활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니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를 영원한

신인 썩음을 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소유를 계속 주장하면서 주님께 접붙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먼저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먼 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교만을 깨뜨리고 나서야 그는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의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주

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풍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에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삶은 단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재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9)고 말한 바울의 고백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 개혁신당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일)
2)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2)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3)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4)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필기고시 당일 본인 선택한 본문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③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하역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무슬림-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프랑스가 수천 명의 이슬람교 이민자와 난민들을 허용한 후에 일어난 대규모 이슬람교 ISIS 테러 공격은 지금 프랑스와 온 유럽을 깨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국경을 닫기 시작하였지만 과연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유럽이나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슬람국가에서 계속되는 잔인하고 가혹한 살인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 난민들과 무슬림 여성, 아이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반면에, 만일 무슬림 ISIS 테러가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마치 파리에서 테러를 벌인 것처럼 미국 안에서 그런 테러를 벌인다면, 미국 안에 있는 무고한 가정들과, 여성, 아이들, 크리스천들은 얼마만큼 희생이 될까요? 미국 시민들의 희생과 상실은 얼마나 어마할까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FACT 1: 11월 17일 CNS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이 이미 몇년간 받아들인 난민들 중 2,098명이 무슬림들이고 53명만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난민들은 2015년 여름부터 오바마 정부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는 투표권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FBI는 미주 50개 안에 있는 1천 개의 활성화한 ISIS 조사를 쫓고 있기에,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새로 입국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뒷배경을 확실하게 조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라고 오바마 정부에 여러 번 경고했다고 합니다.

FACT 2: 무슬림 국가에서도 원치 않는 무슬림 시리아 난민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FBI 및 미국 수사관들의 예상입니다.

아래는 2015년에만 미국에서 무슬림들이 테러 음모로 혐의된 사건들입니다.

- Raees Qazi와 Sheheryar Qazi는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뉴욕시에 폭탄 폭파 계획하다 잡힘.
- Fazliddin Kurbanov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난민으로서 미국 군사 시설에 폭탄을 구축하는 방법을 테러조직에 교육을 제공.
- Zacharia Yusuf Abdurahman, Adnan Farah, Hanad Mustafe Musse, Guled Ali Omar, Abdirahman Yasin Daud, Mohamed Abdihamid Farah는 예멘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과 이민자들로서 ISIS를 몰자 지원 제공하기 위한 시리아 여행 공모.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으로서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며 총을 구입하여 FBI와 다른 법 집행원들을 죽일 공모.

- Zacharia Yusuf Abdurahman, Adnan Farah, Hanad Mustafe Musse, Guled Ali Omar, Abdirahman Yasin Daud, Mohamed Abdihamid Farah는 소말리아에서 온 무슬림 난민으로서 ISIS를 가입.
- Noelle Velentzas, Asia Siddiqui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에 프로판 탱크 폭탄 폭발시킬 공모.
- Harlem Suarez는 쿠바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키웨스트 해변에서 뜻이 가득 찬 가방 폭탄 폭발을 꾸밈.
- Dilkhayot Kasimov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ISIS를 위해 1천6백불을 제공하고 ISIS를 위해 미국에 지하드를 계획.

난민들 중에 IS 테러범 숨어있어 전 세계 고민 UN은 시리아 주변국들이 난민 수용하도록 종용

11월 19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들이 만일 미국시민들에게 정말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여행자(tourist)가 줄 수 있는 위협정도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작을 것이다. 시리아 난민들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번 파리 사건으로 미국시민들에게 무슬림들을 마치 위협자처럼 위장시키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쟁기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시리아 난민들은 겨우 "여행자"가 줄 수 있는 위협(사기, 도둑질)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11월 16일 CNS 및 여러 언론들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며, "꼭 받아들이고 싶다면 차라리 위험성이 훨씬 적은 크리스천 난민들만 받아들여야"라는 의견을 제시한 공화당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 난민들은 받고 무슬림 난민들을 받지 말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비시민적 발언이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연민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크리스천 난민만 받으라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인정머리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FACT(사실)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실들에 근거하여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뽑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큐타, United아랍 Emirates와 바하렌 같은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시리아 난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FACT 3: 10월 중순경 UN 발표에 의하면 시리아 난민들 중 적어도 62-72%가 남성, 13%가 여성, 15%가 아이들인데, 더 무서운 조사발표에 의하면 이 중 25% 이상이 시리아 난민이라고 거짓으로 들어오려다가 궁정에서 들켰다는 사실들을 보도하였습니다.

FACT 4: 충격적인 설문조사

11월, 아랍연구및정책연구소(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에서 터키, 요르단, 레바논에 있는 900명의 시리아 난민들과 6개의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ISIS를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총 23%의 시리아 난민들은 ISIS에 채용될 마음이 있다고 밝혔고, 1/3 시리아 난민은 이슬람 ISIS 동조자나 지지자로 조사됐습니다.

FACT 5: 몇년간 이미 미국 안에 들어온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난민들 중 70여명의 무슬림들이 ISIS 테러가담으로 이미 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ISIS 가담한 난민들의 숫자는 더

■Abdirahman Sheik Mohamud는 시리아에서 무슬림 이민자로서 텍사스에 군사기지에 가서 3-4명의 미군인을 죽일 계획.

■16세 시리아에서 무슬림 이민자로서 ISIS를 지원하고 총 판매점을 털어 미군들을 죽일 계획.

■Rahatul Ashikim Khan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소말리아로 가서 테러 훈련받고 미국에 지하드를 수행할 사람들을 선동함.

■Muhammad Abdulaziz는 쿠웨이트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4명의 미해병대와 채터누가 선원 공격과 살해.

■Fareed Mumuni는 가나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이슬람 테러 단체 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에 테러 공격을 꾸밈.

■Ali Shukri Amin는 수단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온라인으로 ISIS에 가입하고 지금은 시리아에서 ISIS 군인.

■Bilal Abood는 이라크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로서 ISIS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리아 여행을 계획.

■Ramiz Zijad Hodzic와 Sedina Unkcic Hodzic는 보스니아에서 온 무슬림 난민부부로서 5명의 친척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IS에 돈과 무기를 공급.

■Abdurusul Hasanovich Juraboev, Akhror Saidakhmetov, Abror Habibov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와

문제 해결: 지금 UN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 주위의 이슬람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시리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난민들이 빨리 자신들의 국가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파리 테러 사건이후 총 31주(States) 주지사들(캘리포니아는 제외)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법을 규정했으며 감사기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인 Ted Cruz 의원의 리더십으로 11월 19일 목요일, 하원에서는 미국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는 법안이 289-137로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242명의 공화당과 47명의 민주당이 찬성을 하였고 137명의 민주당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veto)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민주당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미국 시민의 안전을 무슬림 난민들보다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크리스천 난민들이 미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울러 난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몇달전 LA에서 "예루살렘" 아이맥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지금 치열한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나라가 망해 예루살렘은 누구의 통치에 속해 있었으며 언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Won집사

A: 인류역사를 뒤늦게였던 열국 대제국들은 모두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중동지역의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나라가 예외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세계사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쟁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약 1300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즉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정복하였고 그 후 400년 만에 다윗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하였으며 그 후제사 솔로몬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다윗왕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1948년 유엔관할 도시...1967년 6월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귀속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를 계승한 그리스 제국이 유대인 강제 동화 정책을 시행하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기원전 167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잠시 유대민족 국가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 이어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제국이 주후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110만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영토와 예루살렘을 각각 팔레스타인과 엘리야 카피톨리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연속해서 비잔틴 제국, 아랍 이슬람제국, 로마카톨릭의 십자군, 맘루트 제국을 거쳐 1516년 이래 오스만 제국(오늘날의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7년 약400년간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그 점령지였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은 대영제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5일에 유엔 결의하에 현대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1967년에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발한 6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지부와 예루살렘을,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와 시나이반도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2000년 만에 유대인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 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목사님)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역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1. 제 출 기 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접수)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전화 : 410-422-9266), 청빙위원 : 김금화 장로(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www.skoreanchurch.org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 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회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심수일(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교회 웹사이트- kpcwc.org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비를 발송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지정 부족들(SCHEDULED TRIBES)



인도에 거주하는 23개의 "지정 부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수천년 동안 인도는 수많은 종족 집단들의 고향이 되었으며, 그 종족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인도에는 14개의 주요 언어가 있으며 이 나라 전역에는 또다시 수백개의 다른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의 복잡한 "카스트" 제도로 해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많은 사회계급, 직업군, "지정부족"으로 한층 더 많이 나뉘어지고 있다.

인도에 이르며, 여기에는 브힐, 곤드, 산탈족과 같은 큰 종족들도 포함된다(이들 모두는 별도의 프로파일 이 있다). 하지만 사회체제나 결혼관습, 언어, 종교와 또 어느 정도로는 그들의 고립된 위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정 부족들도 많이 있다. 주위 종족들과는 달리, 지정부족들 각각은 그 자체의 사회적으로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고도 알려진 이 부족들은 가장 하층의 힌두 카스트가 된다. 그들은 상당히 개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정치와 경제의 주류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949년, "불가촉"이란 것은 불법화됐고 이 부족들은 특별 대우를 하기 위해 "지정"됐다.

삶의 모습

지정부족들 많은 수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부족들은 나라 전역에 퍼져 있다. 많은 수는 격리된 지역에서 산다. 그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만 아직도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들도 적은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부족들은 산림에서 나는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일, 화전농업, 가축사육, 가내수공업, 기타 잡일들을 한다. 화전농업을 하는 부족들은 대개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 주변에서 산다. 원시적인 도구로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는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새로운 땅을 선택해 다음 작물을 심는다. 곡물과 과일이 주요 작물이다. 필요하다면 산림에서 나는 채집물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되기도 한다. 부족들의 적은 수는 아직도 반쯤은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털을 놓아

잡으면서 1년에 3-4번은 돌아다닌다. 지정부족들 대부분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살며, 대개는 지도체가 매우 약하다. 부족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족내혼을 한다.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많은 수는 아직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듣는다. 소수의 부족들에게는 여전히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 관습이 있다. 때때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랑은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동과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 씨족은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다. 씨족은 공통 조상의 자손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초상이 있으면, 씨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여 곤궁에 빠진 가정을 돕는다. 많은 씨족들은 농토와 가산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 종종 단일한 조직으로서 함께 일한다. 많은 부족사회에는 예술, 음악,

춤이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집안을 장식하는 모습에서, 옷을 짜서 입는 모습에서, 또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장신구에서 드러난다. 문신은 매우 대중적인 것이며, 많은 부족사람들이 몸의 문신을 드러나도록 옷을 적게 입는다. 그들의 음악에서의 음정은 제한된 옥타브 내에 있다. 부족의 춤은 단지 몇몇 동작만을 가지고 한번 출 때 반복을 한다. 특별한 가구나 춤꾼도 없이 모든 남자, 여자와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다 함께 한다. 신앙 지정부족들 많은 수는 가장 강력한 이웃인 힌두교인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많은 전통관습을 포기했고, 이제는 힌두교 관습을 많이 따라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만(힌두교의 가장 높은 카스트인 사제와 학자)의 것을 따른다. 전통종교의 흔적들도 발견되고 있지만 이 부족들은 주로 힌두교도로 여겨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일차 안되는 소규모 부족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없다. 대규모 부족들 몇몇은 선교단체가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립돼있는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족 공동체 모두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서 절실하다. 의료품 공급과 자질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독교 사역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 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마도 기독교인 교사와 의료팀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지하교회 단속 강화...외국 목사 입국도 불허

중국 정부가 지하교회인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시사하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하 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는 미국이나 홍콩 목사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이들이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활동을 제한하거나 구타를 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기독교 인권기구인 웨이화(對華)원조협회는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후베이(湖北)성 등의 수 십개 교회목사들이 이달 초 저장성 이우(義烏)에 모여 당국의 탄압에 맞설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중국기독교 삼자(三自)애국 운동위원회(일명 삼자교회) 소속 목사들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중국내 기독교도의 생존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아래 단속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자교회의 한 목사는 RFA에 당국이 오는 12월부터 종교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지하 교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회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지하 교회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 있는 교회 목사들의 중국 입국을 막기 위해 입국금지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 미국계 화교 목사는 최근 정식 비자를 받았으나 중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조사후 입국이 거부됐다. 또 홍콩 기독교 학생들은 구이저우(貴州)에서 한 교회를 방문한 후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돼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하 교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수도 베이징에서 '기독교의 중국화'를 주제로 하는 비밀회의를 개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지하 교회에 대한 단속 강화는 기독교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하 교회가 신도수 급증으로 정치 세력화하면서 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당국은 기독교 교회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십자가 철거 캠페인에 나서 현재 1천200개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올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도는 6천700만 명선이다. 하지만 미국 종교사회학 전문가 로드리 스타카는 중국 기독교도가 1억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추산했다.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 목사

미국의 젊은 목회자가 보여준 사랑의 용서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지난 11월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른바 '아만다 블랙턴 살해 사건'으로 불린다. 워낙 사건사고가 많은 미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만다는 3년 전 계획한 젊은 목사의 아내이자 1살 짜리 아들을 둔 엄마였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 13주 상태였다. 지난달 11일 아만다의 집에 두 명의 강도들이 들어와 1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한 그녀에게 총격을 가했다.

납편 데이비 블랙턴 목사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미국인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18살 래리 테일러와 공범 21살 켈렌 왓슨 범인들이 붙잡혔다.

미국 ABC 보도에 따르면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에 블랙턴 목사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전했다. 그는 "범인들을 용서하겠습니

다. 예수께서 자신과 가족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어서 그는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은 증오, 분노, 그리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 한 지난 10년 동안 아내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러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제 삶은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턴 목사는 범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했다.

미국령 쿠바난민 수천명 중미 코스타리카서 오도기도 못해

미국으로 향하던 쿠바 난민 수천명이 중미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국경지대에서 움푹딴살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니카라과와 접경을 이루는 코스타리카의 학교와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 3천여 명의 쿠바 난민이 임시로 수용돼 있다고 중남미 뉴스네트워킹인 텔레수르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2주 전 니카라과 정부가 코스타리카에서 국경을 넘어오려는 쿠바 난민들을 통제하면서 벌어졌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4일 쿠바와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니카라과,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국가의 관계 장관들이 엘살바도르에 모여 논의했으나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코스타리카는 회의에서 쿠바 난민들을 위한 '인류애적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니카라과 측에 제안했으나, 니카라과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부인인 정부 대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경 근처에 있는 쿠바 난민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니카라과는 쿠바의 동맹국이지만 국경을 접하는 코스타리카와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하다.

최근 미국을 향하는 쿠바 난민은 과거처럼 플로리다 해협을 배로 건너는 것보다 중미로 건너간 뒤 멕시코 내륙을 종단해 미국 텍사스 또는 캘리포니아 국경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작년 말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고 나서 쿠바 난민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들어 지난 9월까지 미국으로 입국한 쿠바 난민은 2만7천여 명으로 2014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78%가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현재 비교적 관대한 미국의 쿠바 난민 정책이 향후 관계 정상화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아파 종교행사 '아르바인' 임박 이라크 키르발라 최고경계령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종교행사인 '아르바인'이 임박하면서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 주(州) 전역에 27일 종파간 테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라크 국영 이라키야방송은 이날 "아르바인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인 27일부터 수백만명이 카르발라를 찾았다"며 "카르발라 주당국이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아르바인은 시아파가 숭모하는 이맘 후세인의 전사 일을 기리는 '아슈라'의 40일 뒤 진행되는 종교행사다. 시아파 무슬림은 후세인이 사망한 카르발라의 이맘 후세인 모스크를 찾는 성지순례를 행한다.

매년 아르바인에는 2천만명에 가까운 전세계 시아파 무슬림이 카르발라에 모인다. 인원 규모로만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정기 성지순례(200만-300만

명)를 크게 웃돈다. 올해 아르바인은 12월3일이다.

시아파가 한꺼번에 모이는 만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테러 이라크 치안 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카르발라 주는 IS의 근거지인 안바르 주에 인접했다.

이라크 경찰은 카르발라 시내뿐 아니라 이곳으로 진입하는 길목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자살폭탄 테러 용의자를 검문하고 있다. 2013년 1월 아르바인 당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아파를 겨냥한 차량폭탄 테러로 20여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도 박격포 공격으로 카르발라에서 1명이 사망했다.

성경 속 예수가 마신 고대 와인 복원

이스라엘 대학 연구진이 예수 시대의 고대 와인을 재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아리엘 대학 연구진은 유대민족기금에서 연구비 75만 달러를 지원받아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근거해 '마라위(Marawi)' 와인의 자취를 추적했다. '함다니(Hamdani)'라고도 불리는 마라위는 다윗왕부터 예수까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마시던 와인이다.

연구진은 2011년부터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찾은 타거나 말라버린 포도씨앗들에서 DNA와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마라위와 '안다리(Jandali)' 등 토종 포도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3)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요소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을 주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었고 세상을 잃는 대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33)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 열매는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며, 이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 하시 는 것입니다.

1)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락하신 거룩한 소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설교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여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실제로 재배한 50여 종의 토종 포도 가운데 20종은 와인 제조에 적합한 품종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왕 시절 구리 광산이 있던 담나에서 발견된 기원전 10세기 담나귀 똥에서 발견된 포도 씨앗은 와인을 만들고 남은 잔여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함께 와인 제조에 나선 '레카나티' 양조장은 지난해 마라위 와인 2480병을 제조해 텔아비브 10개 식당에 공급했다. 레카나티 측은 2015년산 마라위 와인도 4000여 병 마련했으며, 조만간 자신들의 와이너리에서 직접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리엘 대학의 포도주 전문가인 엘리야시브 드로리는 "성경에 와인과 포도 이야기가 가득하다. 프랑스가 와인 제조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와인을 수출했다"라며 "우리는 독자적인 고대 문명을 지녔고 이런 정체성 재건은 국가적 자존심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YT는 고대 포도품종의 재발견은 이스라엘 와이너가 세계 와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도 품종 표기를 놓고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여지도 있다. 이스라엘에 앞서 고대 토종 포도를 복원해 와인을 만든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8년 베들레헴 인근 소규모 양조장 '크레미산'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탈리아 수도승들이 안다리 포도와 다른 토착 과일을 재료로 함다니 와인을 먼저 만든 적이 있다.

꿈을 꾸리라"(행2:17)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오시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소원을 품도록 도와줍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에 넘치는 참된 소망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소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꿈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처럼 자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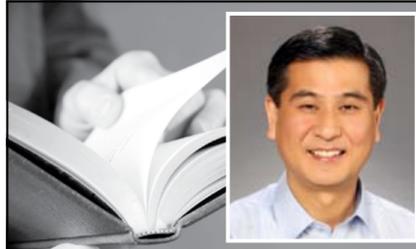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대답한 것이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5:14-15)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3)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일, 악한 사탄의 세상이 멸망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은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성도 개개인 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2)

이단은 영적 기생충과 같은 집단이다. 그들도 기독교의 진리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을 좇아 인용한다. 그들의 뿌리가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실망하고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지니게 된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사상과 신학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선별하고 추출해서 혁적인 문장을 키우는 일에 사용한다. 이단은 교회의 영적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질문: 초대교회는 313년 속사도 시대의 마감 전에 출현한 이단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였는가?

■ 이단과 공동체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배하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지만, 불완전한 모습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외부의 핍박과 시련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켰다. 어려움이 커져갈수록 그들은 서로를 향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다짐하고 격려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고난은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 영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도구이다.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결속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

열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단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금과 같이 신학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단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수용하던 그들의 마음을 혼들어놓았다. 신앙공동체가 함께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얻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이단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로 보았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것, 초대교회가 이단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치와 판단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서로 다른 자들이 함께 하나 됨'을 이루려면 반드시, 함께 공유하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 진리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 이상이다. 지적 활동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섭리하셨다.

초대교회가 신앙공동체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던 '그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의 정경화'라는 커다란 숙제를 마쳐야 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의 교리 체계는 어떠한가? 이단은 무엇이 다른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식으로서의 기독교는 교회나 성도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이다. '그 진리'는 곧 성경이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출발과 함께, 모든 신앙과 교리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갈라디아서 1:6-10; 디모데전서 6:3-6; 디모데후서 1:3-14; ;

이단의 출현과 함께 교회는 소위 '정통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단의 출현 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진리를 체계화 하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단을 단순히 정죄하고 교회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이단이 교회에 남긴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다. 거짓 진리를 받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놓은 성도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뿐 아니라, 막스럼치 않은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심지어 자신이 '정통 신앙'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고집하는 성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만일 그 진리나 경험이 어떤 것이지, 나의 삶과 생각이 범주 안에서 이뤄진 것을 참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단과 정통신앙 모두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만이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일 '그 진리'이다. 신앙이란, '그 진리'를 받아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이단 출현으로 복음으로 결속된 초대교회공동체는 분열 아픔 경험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 정통 신앙 위해 성경의 정경화 작업 완성

■ 지식으로서의 신앙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그렇다고 '마음만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후대 교회에 전달된 진리를 존중히 여긴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절대로 금지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진리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자라온 배경과 문화가 전혀 다르고 삶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단의 출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단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후대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로부터 분리되는 자들에 대한 아픔이었다.

'이단'은 무엇보다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겨난 것이 주를 이루지만, 이외에도 공동체에 대한 의도적인 반감 또는 개인의 야심과 탐욕이 원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식으로서의 신앙의 역할이 불가능 하였던 것은, 어둠과 차가운 그들의 마음에 '그 진리'가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것은 90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얌니아에서 모인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신약 27권은 397년이 되어서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경화가 이뤄지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글 이외에, 비록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되었던 책들(호모루구메나)과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권장할 수 없는 책들이 함께 공존하였기 때문이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주신 것을 검증하고 판단하여 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정말 그랬을까?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모세가 잘 생겨서 숨겨 키웠던 것일까?

친구에게 웃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왜 창상과부애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군다나 이방인까지 한

웃과 결혼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0.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쁘니까!" 교인들에게도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랄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예쁘면 다 응서된다는 말이 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창29:17). 다투어 우리의 아내 밋세바를 취했던 아유도 그녀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삼하11:2).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될 수 있었다(에2:7). 갈렙에서 큰 양떼를 치고 있었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으니" 그의 아내 아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삼상25:3). 그래서 다투는 그녀의 남편이 죽은 다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창39:6).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창39:7). 미모에 반했던 것이다.

사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아예 위만 큼 더 컸더라"(삼상9:2). 이러한 그의 외모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바로가 히브리 사내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의 어머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릎 쓰고 세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키웠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출2:2).

이상한 것이 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겨서 죽이지 않고 숨겨놓고 키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모세가 평범한 얼굴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살려두고, 못생겼다고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9면으로 계속)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 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척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5월	11월	2014년 1월	7월	12월
1월 ~ 10월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 금식기도원 (강화) 인정강성교회(이철홍목사)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1월 ~ 13월 평화동아침기도회 남부시할 재지부총회 16일 ~ 18일 예복교회 (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8일 ~ 21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24일 ~ 2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하늘미전교회 (오영택목사) 31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11월 1월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5일 신남성경교회 (이정현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29일 대림교회 (윤영미목사) 29일 ~ 30일 드림교회 (장준희목사) 31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0일 ~ 2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23일 ~ 29일 창광교회 (김영민목사) 30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통교회 (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7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 23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24일 ~ 2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천마산기도원 (육광석목사)	12월 1월 ~ 2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30일 ~ 31일 GST 미전서지 (김보디타) 2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2월 2일 ~ 7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9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3일 ~ 15일 GST 신학생총회 (34차)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3일 ~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6월 1월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일 ~ 11일 온양감리교회 (주현식목사) 15일 ~ 17일 예우림교회 (류명희목사) 22일 ~ 24일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한동)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1월 ~ 2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30일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2014년 1월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0일 ~ 2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23일 ~ 29일 창광교회 (김영민목사) 30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통교회 (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4월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민교회 (이성관목사) 23일 ~ 25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를 26일 ~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3월 1월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4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5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6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7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8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0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1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2월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17:11-19에 열 문둥이 의 비유가 있다. 열 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라고 질시 받는 사마리아인 문둥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홉 사람은 감사가 없었다. 이들은 왜 감사가 없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이 앞섰기 때문이다. 아홉 문둥이는 예수께로부터 병을 고침 받았지만, 문둥병을 고침 받은 은혜보다도 고향에 처자식과 재산에 대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앞세우기 못하고 세상의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감사는 없고 불평만 앞선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홉 문둥이가 병을 고침 받고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면 틀림없이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5)

응답받는 기도-기도의 자세를 바로 하라(2)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은혜이다. 이것이 감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응답되어 다 이루고 나면 좁아지고 싶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에서 쉬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특히 개인적 필요에 따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나왔을지라도 감사함이 동반된

이 계속 달라고만 한다(약4:1).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기만족과 더 나은 내일의 환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어찌보다 나은 오늘을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허기진 정욕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러다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 감사로 채워져야 할 신앙고백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아무

리는 아홉 명의 문둥이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 모든 복은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107:1)고 하셨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아뢰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23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로마서 1:21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

기도하면 어떤 문제보다 더 급한 신앙생활 문제 깨닫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병 나옴에 대해서만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다. 인생은 모든 일에 작은 은혜나 큰 은혜나 헤아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 역막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등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가?

셋째,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아홉 문둥이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어버렸다. 물론 사람이 불행했던 때에 집착하거나 붙잡힐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성공하면 교만하지 말고, 불행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성공을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넷째, 감사하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주신다. 본문에 나온 이방인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사례할 때에 영혼을 구원받은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 그것은 아홉 문둥이가 전혀 모르는

기도의 삶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국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응답받기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다(골4:2). 이 말씀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나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후에야 '겨우 이런 문제 밖에 없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된다(고전10:13).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주신 영육 간에 은혜와 복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없

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눈물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것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다(살전5:18).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요청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생활을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쁘신 뜻을 따라 열납하시는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이다. 만약 감사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의리의 사람이요,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일 것이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

지 않으면 이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다소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때,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큰일을 맡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4-8).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가을 바람

평소엔 반쯤 감긴 눈으로 교회로 향하던 새벽길이다. 그런데 오늘은 서늘한 바람이 말을 걸고와 창문까지 내리며 새벽의 싱그러움을 만끽한다. 아!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흔하지도 세척될 것같이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맘속에 많은 가을 바람들로 두 손을 모은다.

한 주 동안 허덕이는 삶 속에서도 문득 문득 삶을 매만지며 주님의 경륜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게으르고 용기 없고 소심한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날마다 자기다위지기 위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수 없이 부딪히는 세상살이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별하며 끊임없이 보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지는 때보다 이기는 시간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소리 내어 자기를 변명하고 내 편을 만들고자 실득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닌 우리의 입을 써서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수많은 삶의 얼굴들 가운데 밝고 유쾌한 얼굴이 습관이 되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내 삶 자체만 유일한 물음이 아닌 먹는 일, 사는 일로 슬픈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몸을 쓰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때론 다 이해 안 되는 몸짓도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마음의 온도를 잘 조절하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서로의 없는 것을 몰래 채워주고 막대한 마음을 조금만 더 눈치채주어 막히고 닫힌 마음들을 실타래처럼 풀어주는 멋진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내가 배운 사랑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혼자서도 행복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행복한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얼굴보다 옷차림보다 마음을 더 가꾸어 외모에서 내면까지 멋진 작품으로 삶을 디자인해가는 매력 있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궁리보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까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않고 진실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돌맹이처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와준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한 성도님들이 자주 자주 많아졌으면...

이 모든 바람들을 내 기도 속에 담으며 더 많은 바람들을 가득 담아도 너그러우고 깊숙한 가을 마음이 되기를 또한 바람해 본다. 보이지 않는 우물속이 깊은지 얇은지는 돌맹이 하나를 던져 보면 알듯이 내 마음 역시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한번 절망하고는 금방 고요해지는 깊은 우물이면 좋겠다. 이 가을의 한복판에서 각기 세 색깔로 물들 줄 아는 영글고 철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름다운 계절의 한 부분이 되어 조금씩 제 색으로 칠이 들어가는 깊고 영근 우리들이 되었으면... 이 가을 새벽에 또 바람해 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비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사별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강점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WM에 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	뉴욕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대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예사당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33-003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목회서신

무기력에서 갈망과 열망으로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반신욕"이 우리 신체 건강에...

런 무기력증 증세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 오듯이 현대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 소리 없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공동체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전락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더니티(근대성)와 포스트모더니티(후기현대성)에 속한 세력들이...



여승훈 목사

필자는 시카고의 추운 겨울날 버팔로 그로브라는 길을 운전해가면서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내리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겨울나무를 무척 인상 깊게 바라보았던 적이 있다. 나무라는 빼대만 간신히 갖추고 있는 시카고의 겨울나무들이 오늘날 북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망을 놓쳐버린 채 기독교적인 흥내만 간신히 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이상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현대 신앙공동체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시카고의 겨울나무를 보면서 필자의 입에서 내뿜어진 한마디가 있었다. "보기 흉하다."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북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망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흉내내며 세상을 더욱 모방해가다보면 "보기 흉하다"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이다.

세상을 모방해가는 세속주의 양상은 특별히 세상 속에서 파문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

각지 말라. 어쩌면 지극히 세속적이 되지 않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 속에 세속주의가 더욱 짙게 묻어올 수 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는지 아는가? 바른 학문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이 곧 세속주의와는 구별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바른 학문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은 분명 세속주의로부터 구별 되게 하는 매우 기본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종종 바른 학문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도 세속주의의 보기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공동체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세속주의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공동체를 보호하고 북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망을 다시 뜨겁게 가질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포인트하고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서라. 성령께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오...

오는 세속의 물결을 성령께서 씻어 내 줄 것이다. 그냥 서라는 말이 아니다.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서 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무뎠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감격하여 두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오지 않았나 싶다. 이제부터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자. 바로 그곳이 진리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도의 함성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 성황

초겨울 남가주 애너하임에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11월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CCC 찬양팀(찬양인도 박종술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한기홍 목사(다민족연합기도회 대표대회장/은혜한인교회)의 환영 인사, 루 잉클 목사(The Call 공동 창립자)와 제리 디어맨 목사(더락 처치 담임), 김충근 장로(자마)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개 기도회와 가정 △학교와 문화 △국가지도자 △사회정의와 변화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박용수 목사, 정영희 목사, 민경엽 목사, 스티브 최 목사, 김철민 장로, 김영길 목사, 박성규 목사, 박용덕 목사, 김한오 목사, 권혁빈 목사, 김인식 목사, 남성수 목사, 정기정 목사, 안지영 목사 등 목회자들과 미셸스틸박 OC2지구 수퍼바이저, 영길 거주하원의원, 최석호 열반인 시장, 스티브황보 라팔마 시의원, 유수연 OC교육의원 등 한인정치인들도 함께 동참해 미국...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의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었다.

또한 데이비스 힐 목사(Fire House of Prayer), 윌리 홀메스 목사(INA Mega Church),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A Lind in the Sand), 디온 엘모어 목사(National Day of Prayer), 레이몬 아로요 목사(Brawley Supermatural Church), 리빙스톤 리우 목사(Evangelical Formasan Church of Rowland Heights), 카토 데우드 목사(Missionary to Middle East) 등 비한인권 목회자들도 기도인도자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월드 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마쳤

다. 이번 기도회는 그동안 해왔던 각 민족별 기도회를 탈피해 모든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가진 진정한 다민족 연합기도회로 드러나게 됐다.

또한 지난번 기도회 때까지 기도인도자들의 기도가 중보했던 것이 이번 기도회에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된 점은 역대 기도회중 가장 깔끔하게 진행된 기도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땀스기빙 연후에 기도회가 열려 타민족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은 다민족기도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박준호 기자)



OC평신도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연임

제36회 정기총회, "회장 임원단 그대로 섬겨"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임원 및 이사 등 대의원 30여명이 모여 제36회 정기총회를 갖고 윤우경 회장을 연임시켰다.

1부 예배는 윤우경 집사 사회로

이사장 신복수 장로의 대표기도, 자문위원 노정도 목사의 누가복음 17장 5-10절을 본문으로 한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는 말씀이 전해졌으며 초대회장 양문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입회장 선출에서 증경회

장, 증경이사장들이 사전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논의 끝에, 1인 기권, 나머지 찬성으로 윤우경 현 회장을 일 년 더 연임키로 하고 신복수 이사장이 총회에 인준을 요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윤우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회장을 맡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준 이사장과 이사회에 감사하며 함께 수고한 회장단과 임원 모두 다음 회기에서도 그대로 함께 섬기며 각 교회의 대의원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36년의 첫 걸음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36대 OC평신도연합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윤우경 △부회장: 조승국, (재정)정영숙, 유재원 △회계: 신디언 △봉사: 박미에 권사 고정은 권사 △체육: 이관우 장로 △홍보: 신용, 이영인 △음악: 황성삼 △미디어: 박형모, 전재룡

(기사제공: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안인권 목사가 정승호 사무총장에게 시리아난민캠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메릴랜드 새소망교회 시리아 난민캠프지원

KAFHI에 2만 달러 후원금 전달

메릴랜드 버틀스빌에 위치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리아난민캠프에 있는 시리아 기독교난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갖고 수익금 2만125달러를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이사장 배현찬

목사)에 전달했다.

안인권 담임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삶의 적용을 호소했다.

새소망교회는 작년에도 바자회를 통해 이디오피아 화재진급구호

기금 1만9천 달러를 전달하는 등 지구촌 구제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다.

현재 시리아 난민구호캠프를 지원하는 국제기아대책(FHI)에 따르면 시리아는 지난 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피난민이 됐으며 그 중 50%가 15세 미만의 아동이다. 또 내전 사상자의 10%가 아동이며 난민 70% 이상이 절대빈곤 상황에 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난민캠프에서 여성과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게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캠프촌 교회와 학교를 통해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다.

KAFHI 정승호 사무총장은 특별히 ISIS 점령지에서 피난 나온 시리아 기독교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난민가정의 한 달 텐트거주비용은 670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KAFHI 후원문의는 (703)473-4696, (847)296-4555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KAFHI)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에서 장석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학교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라"

미성대 D.Min개설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 D.Min 개설 감사예배 및 제 11회 후원의 밤이 29일 오후 4시 임마누엘선교회(담임 류종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비전 나눔, 3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학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안중기 목사 기도, 조성호 목사 성경봉독, 장석진 목사 설교, 이기홍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말씀을 듣고 선 장석진 목사(미성증경총회장은)는 '당신의 옥합을 깨뜨리라'(막14:3-9)는 제목으로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다. 주님 앞에 설 때 무런 무엇을 하라 왔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학교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자"며 최선을 다해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비전나눔 시간은 유동선 목사(기독교대한성경교회 총회장의) 영상축하 메시지로 시작됐다. 유 목사는 "미성대학이 크게 발전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 양성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학교현황과 본교 학생들의 간증에 이어 약정을 위한 기도와 약정식을 가졌다. 또한 다니엘 뉴먼 박사의 축사와 조종곤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류종길 목사는 내빈과 후원자를 소개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3부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식에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 계속)

그런데 잘생겨서 살려두었다고 하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재 번역의 문제는 이 구절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보기에 잘생겨서 그래서 아이들을 세 달 동안 숨겨놓고 키웠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잘 생겼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다."

이 말은 "로 옮긴 히브리어는 토브(tov)이다. 이 말은 상쾌나 성품이나 가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좋은"이라는 뜻이 있다. 영어로는 "good, fine, healthy"의 뜻을 갖고 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건강했다(정상이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석 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다. 왜 석 달 동안만 숨겨서 키웠는가? 석 달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

유대문헌에 따르면 모세는 석 달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 옛날에는 석 달이나 미리 태어난 아이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났는데도 아이를 보니 건강한(토브) 것이었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모세가 건강한 것을 보는 순간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석 달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모세가 열 달을 다 채워서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산파들이 달려와 그가 사내아이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일찍 내보내셨던 것이다.

만일 모세가 이렇게 미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집에서 숨겨놓고 키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아이는 건강했다. 모세의 어머니는 세 달 동안 그를 키웠다. 산파들이 들이닥칠 때가 되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 강에 띄워 보냈다. 산파들이 모세의 집에 들이닥칠 때 모세는 이미 바로의 궁중에 가 있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 강에서 구해준 것

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 미리 이 세상에 내보내기도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런 기막힌 계획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셨던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입금의 명령을 무시하여 아니하였더라"(히11:23).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제29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의철 목사) 제29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이 12월 7일(월) 오전 11시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01)600-7343

뉴저지 사모회 찬양팀 음악회

뉴저지 사모회(회장 함미상 사모) 찬양팀인 사모니아(지휘 이은희, 반주 이미리)가 12월 12일(토) 잉글우드 병원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문의: (973)626-0856, (201)693-0693.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12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뉴저지 오피스에서 열린다.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참가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참가비는 200달러. 저소득층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장학금을 후원한다.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신성국 목사 소천

1963년 뉴욕한인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뉴욕교협 4대 회장을 역임한 신성국 목사가 11월 22일 오후 3시 워싱턴DC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환송예배는 11월 29일 오후 7시 버지니아에 위치한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승훈 목사)에서 열렸으며, 고인은 메릴랜드에 있는 Norbeck Memorial Gardens에 안장됐다.

▲연락처: (301)996-4272.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2차 실행위원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 제 2차 실행위원회가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 할렐루야뉴욕교회(이미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825-5204



뉴욕장로연합회 35차 월례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권권식 회장, 4번째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뉴욕장로연합회,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초청 35차 월례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는 11월 23일 오후 7시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제 35차 월례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장로연합회는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를 설교자로 초청했다.

이날 예배는 우화선 장로 사회로, 김영호 장로(상임교무)의 대표기도 후 이종명 목사가 "생각을 바꾸자"(왕하5: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고난당하는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김기환 장로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 후에는 제42 회기 이종명 목사의 뉴욕교협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11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축하케이크 커팅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신임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상호 집사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1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대표 송병기 목사, 사무총장 공재규 전도사)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제 21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에 황영송 목사를 선임했다. 이사장은 뉴욕교협 평신도 부회장인 이상호 집사가 자동 선임됐다.

황영송 목사는 뉴욕교협 임원단이 함께한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송병기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 설교 황영송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송 목사는 창세기 43장 1-15

절을 본문으로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리더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 제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나 리더나 목회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려운 때 지금 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유다가 개입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상황을 해결한 유다를 통해 예수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해 목사가 된 황 목사는 "오늘날 한인교회에 주어진 청소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며, "미인교회에 차세대

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생명 건 헌신으로 차세대 세우나 가자"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상호 집사 사회로, 감사 보고, 회계보고, 이사회보고, 프로그램 보고 등을 하고 임원선거를 했다.

송병기 목사는 차기 대표로 황영송 목사(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를 추천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장은 교협평신도 부회장이 맡는 관례에 따라 이상호 안수집사가 선임됐다.

2015년 결산은 우드사이드 건물 매각 후 남은 금액을 교협건물 구입에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97,802.65달러로 보고했으며 2016년 예산은 116,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8% 정도 증액됐다.

청소년센터는 2015년에 성탄절 모금과, 부모교실(뉴욕, 뉴저지, 도요영어), 농구대회, 유스할렐루야대회 등을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실행위원, 후원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지난 29일 저녁 6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전희수 회장은 "지금 지구촌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굶주림과의 전쟁에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며 매년 사망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많은 것이 있으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멋지게 쓰겠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작은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며, "월 30달러를 통해 어린 생명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사무위원), 특별찬양 뉴욕목사중창단, 설교 김승희 목사(이사장), 축도 윤세웅 목사(KCBN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왕의 잔치"(삼상 25:1-11, 36-3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자 나발이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의 칼을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열을 후에 나발을 죽이셨다. 왜 그랬을까? 36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마실 물도 안줬으면서 자신은 왕처럼 먹고 마셨다고 했다"며, "우리는 모두 왕처럼 먹고 마시고 산다. 하나님

은 부자가 되는 것을 타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후원자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부 사역소개는 권케더린 목사(회계)의 사회로 환영인사 전희수 회장, 축사/감사 황동익 고문, 임원 소개, 후원자 소개, 사역영상(예루), 후원사역 간증 오태환 국내선교국장, 이엘리사 사모, 최재복 부이사장, 후원안내 임병남 홍보국장, 특별찬양 뉴욕사모합창단, 김인식 목사/이주현 사모, 광고 김영환 사무총장, 폐회기도 박진하 고문, 만찬 기도 장경혜 해외선교국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후원자 모두에게는 동 기구의 책자 "오병이어"와 머그컵, 볼펜 등의 선물이와 초대교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만찬이 제공됐다.

2007년 설립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4년 콜롬비아 단기선교에 이어 2015년 페루 단기선교를 했으며, 이번 후원자의 밤을 계기로 2016년에는 콜롬비아 모기장과 볼렝크 사역, 아프리카 코드 디브라르 아동결연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동 기구는 현재 6개국(북한포함)에 140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가 신임대표 황영송 목사, 그 왼쪽이 이상호 신임이사장.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모임을 갖은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모임

이영훈 목사, 뉴욕교협에 약정 총5만불 전달

뉴욕교협 42회기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을 초청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지난 회기에 새 교협건물을 방문했을 당시 약정했던 총 5만 달러 중 남은 금액 4만 달러를 뉴욕교협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후원금은 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양승호 목사와 총무 이경환 목사가 전달했다.

증경회장단 회장 허길 목사의 인도로 뉴욕교협의 양대 단체의 신임 회장인 뉴욕교협 이종명 회장과 뉴

욕목사회 김영환 회장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명 교협회장은 "많은 분들이 42회기에 새로운 기대를 거는데, 뭔가 다르게 개선된 교협운영을 위해 지난주에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모범적이며 투명한 교협운영을 약속한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영환 목사회 회장은 "어렵게 회장이 된 만큼 열심히 목사님들을 섬기겠다. 목사회가 일취월장하고, 기도하는 목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서로 격려 존중하는 관계...훌륭한 멘토 되자

미주한인여목협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가 지난 1일 제 7회기 "여성목회자의 날-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뉴욕교협 건물에서 가진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감사-이웃사랑 나눔 및 우리들의 이야기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조상숙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은희 목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특송 살렘찬양단, 말씀 장경혜 목사, 봉헌기도 남승분 목사, 광고 장만자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3:1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의 멘토요 목회자의 멘토였던 주관준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쉬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사역 기간 동안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목회자협의회가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훌륭한 멘토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2부 감사는 권케더린 목사 사회로 축사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성금 전달, 축시 배임순 목사(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간증 김에스터 목사(개신교수도원 부원장), 찬양 뉴저지지원위원장, 시낭독 장현숙 목사(주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함!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바라기듯, 하얀 사람), 찬양 김수경 목사(나의 소망), 간증 전인숙 목사(Mission is my work, Follow Jesus), 색소폰 연주 유상열 목사(Deck the Hall 외), 폐회기도 이미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성금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개신교수도원, 도르가의 집, The 2nd Life Foundation, 거리의 식탁, 새생명선교회, 아가페노숙자교회, 병원선교회, 농아인교회 등 9개 단체에 전달됐다.

간증순서에서 개신교수도원 부원장인 김에스터 목사는 올해 말로 3년간 무료로 사용했던 장소가 폐쇄되고 새로운 장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해 간증했다.

또 브루스에서 목회를 하는 전인숙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현재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솔직하게 간증해 동료목회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3부 교제 시간은 박현숙 목사의 오찬감사기도 후 시작돼 푸짐한 오찬을 즐겼다. 오찬 후에는 12주 성경아카데미 강의를 이어졌다. 이 성경아카데미는 12월 15일(화) 오후 12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오상연 목사)에서 종강파티 및 수료예배를 드린다.

남가주 목사회 주최 고 김영삼 대통령 추모예배 제20대총선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 발대식 기자회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는 고 김영삼 대통령 추모예배를 11월 25일 오전 11시 LA총영사관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에서 가졌다.

리고 백지영 직전회장이 조사를 낭독했으며 박종대 증거회장이 축도했다.

이병도 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으며 재외 선거유권자 등록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재외 선거 유권자 등록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재외 국민 유권자 등록 참여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제임스안 한인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생명찬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함께가요' 행사에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이 찬양인도하고 있다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가 주최하는 퓨리탄 신앙승리 327주년 기념예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생명찬교회 제1회 '함께가요' 행사 남가주밀알선교단, 나눔선교회 초청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가 주최한 제1회 '함께가요' 행사가 11월 24일 오후 6시30분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과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알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이종희 단장이 인사말을, 그리고 김동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후에는 한영호 목사와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집사, 자폐장애 찬양시역자 마가렛 등이 출연해 '함께가요' 행사를 빛냈다.

퓨리탄 신앙승리 327주년 기념예배 12월 15일(화) 오후 7시 나성삼일교회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PARSC 총재 이완재 목사)가 주최하는 퓨리탄 신앙승리 327주년 기념예배가 오는 12월 15일(화) 오후 7시 나성삼일교회(담임 한석호 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A)에서 갖는다.

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주의자로 전락하게 됐다. 1630년 미주 대 이민정책, 43-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채택, 62년 기도직령과 2000명 선교목사 박탈 등 일련의 타락한 신앙과의 싸움에서 1688년 12월 18일 디어 Glorious Revolution(월리엄과 메리 황복)으로 승리했다. 이를 퓨리탄 신앙승리라 말한다"고 전했다.

커뮤니티 화합·공동체 발전과 번영 위해 한미문화센터 자선연주회 성료

한미문화센터(대표 우정자) 자선 연주회가 11월 28일 오후 7시 월셔 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김희우, 김숙영, 에버그린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 열린문화대위십아트 칼리지의 바디워십팀, 바이올린 폴리아, 첼로 이민경, 피아노 김주영 트리오가 출연해 솔로, 듀엣, 퀸텟 무대를 선사했다.



한미문화센터 자선연주회에서 에버그린여성합창단이 합창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는 제25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12월 6일(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 Brea)에서 갖는다.

요셉선교교회 예배장소 이전

요셉선교교회(담임 정상호 목사)는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에 새로운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수커뮤니티교회 새성전 임당감사예배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는 새성전 임당감사예배를 12월 6일(주) 오전 4시에 갖는다. 새주소는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제13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

비전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수 목사) 주최 제13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12월 11일(금) 오후 7시30분 마음이گان 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2515 Beverly Blvd, LA)에서 열린다.

LA 동부지역 성탄 연합찬양제

LA 동부지역 성탄 연합찬양제가 12월 6일(주) 오후 4시30분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에서 열린다.

달라스연합감리교회 열린음악회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철 목사 3800 Carbon Rd, Irving, TX)는 '결작'이라는 주제로 열린음악회를 12월 13일(주) 오후 7시에 갖는다.

도은미 사모 초청 행복한 가정축제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2015 도은미 사모 초청 행복한 가정축제를 12월 5일(토)까지 개최한다.

필그림 찬양사역학교

캘리포니아아트 유니버시티(CAU 총장 정세광 박사)와 필그림선교교회는 동부장로교회(담임 이용규 목사 4270 W. 6th St, LA, CA)에서 필그림 CCM찬양경매자학교를 진행한다.

얼바인온누리교회 12월 목요여성예배

얼바인온누리교회(담임 권혁빈 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는 12월 목요여성예배를 '자녀를 위한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www.thankingchurch.org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lafgusa@yahoo.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Tel: (213) 245-4090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dundundun.org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www.loving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www.daeheung.org	동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dongmun.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www.diaspora.org	드림교회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dreamchurch.org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www.mpcja.org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lightandsalt.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www.bethel.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bvpc.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worldhope.org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www.yoseph.org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www.leafchurch.org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www.walsh.org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www.eunghye.org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junimsaeun.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www.yourglory.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www.goodvillage.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www.cornestone.org
토렌스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www.torrence.org					

“목회자 탈세자 취급하며 납세 강요 자발적 납부로 가야”

교계 ‘종교인 과세 결정’에 우려 목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한국교회가 우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납세 의무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해 사실상 목회자를 ‘탈세자’로 몰면서 납세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과세 근거도 없이 목회자를 ‘탈세자’로 몰아=종교인 과세란 목사 신부 승려 등이 소속 종교단체 등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교회는 세수효과가 없는데다 종교간·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종교인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 65개 교단과 주요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교단연합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기명 세무사는 1일 “공동생활로 속식을 해결하는 천주교·불교 성직자와 달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개별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받는다”면서 “그렇다 보니 개신교 목회자들이 타 종교보다 많은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보이

고 목회자가 종교인 납세의 타깃이 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과세 근거가 될 모범도 없어 무리

그는 “조세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와 목회자가 같은 적용을 받을 때 나 써먹을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밤낮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근로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세무사는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든다는 말은 그동안 종교인을 대상으로 과세할 법이 없었다는

뜻”이라면서 “세금을 부과할 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 여기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지 않았던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세무사찰 가능성도 있어=특

며 자진납세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도 “조세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소득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납세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중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납세와 관련된 우려의 입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용주 세무사는 “만약 종교인 납세가 명문화되고 교회의 불만 세력이나 반기독교 세력이 투서를 하면 국세청은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 권력에 교회가 예속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히 종교인 과세문제는 사실상 고용주가 없는 종교인의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종교 본질적 문제부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사찰 가능성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기관은 자진납세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많은 교회가 종교인 납세를 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납세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이

고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고개혁499주년 기념 콘서트는 9월 3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세 번째 선언인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더욱 연합하겠다는 실천을 위해 개최하는 한국교회개혁실천기도대성회는 10월 30일 오후 3시 장충체육관 또는 올림픽홀에서 갖기로 하였다. 또 한국교회개혁실천 500인 포럼을 ‘한국교회 개혁갱신 실천 8개항 선언의 아젠다’라는 주제로 10월 27일(목)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한다.

또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의 조직을 보완해 기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총재 직제를 삭제하고 대표대회장을 대회장으로 직제를 바꾸어 조직을 개편했다.

중요 조직은 대회장 소강석 목사, 상임대회장 권대진 목사 김용완 목사, 상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실무대표회장 최길학 목사, 대표본부장 오범열 목사, 상임본부장 안준배 목사, 준비위원장 장항희 목사, 사무총장 강현식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

그랜드볼룸에서 갖는다. 한국교회 인테그리티(정직, 청렴, 고결, 온전, 위상)를 실천하는 첫 번째 선언에 해당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 및 교계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한국교회 성령대부흥 109주년 및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성령대성회는 2016년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 오후 7시 30분 명성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5일(주) 오후 7시에는 세이렌교회에서 개최한다. 여섯 번째 선언에 해당하는 한국교회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비텐베르크 포럼 및 개혁 순례 기도회는 9월 5-17일 독일,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한다. 두 번째 선언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갱신에 앞장서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며 기도회를 가질 것이다.

‘한국교회 8대 개혁 사역 펼친다’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세계성령중앙협의회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와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11월 27일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무궁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7종교개혁500주년 한국교회개혁갱신실천대회’의 감사평가 및 2016년 한 해 사역을 확정했다.

집행위원회에 앞선 송년기도회는 대표본부장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상임실천위원 박홍일 장로의 기도, 대회장 소강석 목사의 메시지, 명예실천위원장 민경배 목사와 상임실천위원 김명혁 목사의 실천대 회 감사평가로 진행됐다. 이어 실무대표회장 최길학 목사의 기도와 대회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집행위원회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는 국민일보와 공동주관으로 한국교회 개혁실천 8개항의 선언사역을 한다. 지난 10월 2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7종교개

혁500주년 한국교회개혁갱신실천대회’에서 선언했던 한국교회 개혁갱신을 바라는 선언문에 기초하여 여덟 가지 개혁사항을 한 해 동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역 계획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 갱신에 앞장서며,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한국교회는 교회 선거를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며 교회 내 문제를 세속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고 교회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의 화해와 평화, 하나됨(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도 포함돼 있다.

2016년 신년조찬기도회는 2016년 1월 11일 그랜드엠베스터호텔

감리교, ‘선거 파행 반성’ 백서 7권에 담아

총5500여쪽, 8년 재판 총106건 “파행역사서 교훈을”

감리교단이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겪은 자중지란의 역사를 정리한 백서가 26일 발간됐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기감)는 2008년과 2013년 감독회장 선거 등이 잇따라 혼탁하게 치러지면서 심각한 내용을 겪었다. 백서에는 이들 선거를 둘러싸고 교단 안팎에서 벌어진 사건·사고가 집대성돼 있다.

7권으로 구성된 ‘감리교 개혁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백서는 총 5500여 페이지에 달한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가 있기 전인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독회장 선거 탓에 벌어진 수많은 소송전의 내용과 관련 판결문, 각종 회의록, 언론기사 등이 담겼다.

백서를 내놓은 백서발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출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백서발간위 공동위원장인 전용철(원주 태장교회) 목사는 “오늘의 심포지엄은 작은 행사이지만 큰 의미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감리

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협성대 총장은 격려사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는다면 감리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여러 목회자와 학자들이 ‘감리교 사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했다”며 “감리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백서 발간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감리교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서형석 남서울대 교수는 “한국 감리교회는 경쟁과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와 공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성은 목원대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감동회장’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담긴 새로운 호칭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012-2013년 기감 임시감독회장을 역임한 김기택(서울 성전교회 원로) 목사는 “선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총 106건이나 된다”고 전했다. 그는 “감리교단은 악하고 게으른 총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마땅하다”면서 “감리회 사태로 상처 입은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위로하고 화합하는 대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 조일래 목사 정책발표

“기독교계 최고 싱크탱크 만들어 사회문제 대안 마련”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제5대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조일래 목사(수정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대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기독교 전체의 위상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기독교계 최고의 싱크탱크를 만들어 사회 문제에 대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와 절차를 전제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목사는 “한기총과의 통합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이라면서 “한교연이 출범하게 된 과정을 한국교회가 잘 아는 만큼 문제되는 부분의 정리 없이 무조건 통합에 나서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한기총의 이단 문제 해결이 ‘한교연-한기총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한기총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 한교연은 문제가 해결되면 연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봉은사역명 개정 문제’ ‘동성애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시각도 바꿀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사회발전연구소(가칭)를 설립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사회·국회 정부 언론 산업 교육 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

락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후원하는 마음만큼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한교연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선교 리더로 교회·교단과 협력 강화”

CTS기독교TV 개국 20주년 감사예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국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감경철 CTS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후원해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며 “영상선교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의 20년 또한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TS는 ‘방송’ ‘교육’ ‘문화’ ‘연합’이라는 네 가지 비전을 선포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방송사역을 확장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크리스천 교육을 실시하고 교회와 교단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두천두레수도원 목사는 “비전 있는 방송”(잠 29: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가 가장 중요하듯 CTS도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CTS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 비전을 심어주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신앙매뉴얼 ‘참된 장로교인’ 출간

예장합동출판부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 살아가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인이라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출판부에서 최근 펴낸 ‘참된 장로교인’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장로교인은 종교개혁의 핵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이어말로 ‘참된 장로교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책 ‘참된 장로교인’은 2년여 산고 끝에 탄생했다. 예장합동이 2년 전 98회 총회에서 전국 교회 성도와 임직자들을 위한 교육 교재 발간을 칼빈기념사업위원회에 위임한 게 시작이었다.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 출간의 산과 역할을 해온 오정호 대전 세로남교회 목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마음으로 430 페이지를 켜켜이 쌓아 올렸다”면서 “일반 성도의 눈높이에 맞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매뉴얼이자 바른 길을 찾아주는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장로교의 교리(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와 역사(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성도의 삶(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비전(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을 40개의 장에 나눠 답아냈다.

“한 권으로 읽는 개혁주의 신앙 핸드북”이라는 부제목에 걸맞게 ‘삼

위일체’ ‘아담의 범죄’ ‘성령의 역사’에 따른 구원의 순서’ ‘예배와 주일 성수’ 등 개혁주의 신학과 성도의 신앙생활 관련 내용들을 삽화와 함께 풀어서 설명했다. 각 장마다 성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 나누기’란도 넣었다.

사회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 시대에 원론서와 같은 신앙지침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 목사는 “역사의 뿌리를 모르면 국가관이 흔들리고 교리적 기초가 없으면 신앙이 흔들린다”며 “신앙과 삶의 균형이 깨져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게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책 출간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 책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특히 사랑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는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으니 세로남교회만 해도 제직수련회를 열 때마다 고민만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관련 내용을 짜깁기해서 썼다”면서 “참된 장로교인’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목회자들의 손에 교육의 유산으로 남겨 줄 만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에는 총신대 김길성 김광열 박용규 송광택 신국원 안인섭 이관직 이상원 정승원 교수가 참여했으며 두 차례 공청회와 수십 차례 회의도 가졌다. 오 목사는 “참된 장로교인’ 출간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신앙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음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 총력”

교계국회평신도5단체, ‘교계지도자 초청 현안보고회’

기독교계가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이 들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한평협·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교계지도자 초청 현안보고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 조항 삭제·입법개정 청원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결의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또 동성애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교회 역할 등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평협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성문화(性文化)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평협은 호소문에서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은 건전한 정신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올바른 성문화를 저해하는 인권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비윤리적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못 박은 ‘성적 지향’ 문구는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평협은 앞으로 인권위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각 기관에 전달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에 법 개정 찬반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 결과를 내낸 총선 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미나와 집회,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인권위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평협은 다음 달부터 중부권(대전)과 인천·영남·호남(광주)권 등 4개 지역에서 서명운동 및 현황 보고회를 이어간다.

이날 보고회 자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박무용(합동) 총회장, 영남(통합) 장종현(대신) 총회장, 최낙중 이재장 이종승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덕남 총무, 한국교회연합 김춘규 사무총장, 김진태 흥문종 박주선 임내현 안상수 이혜훈 등 크리스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기독교평신도총재 경수근 변호사, 국가조찬기도회 장 감경철 장로 등도 동참했다.

한평협은 2009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저지를 위해 결성됐으며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이슬람채권법인 수쿠크법 입법 저지, 해외동포 투표권회복운동 등을 펼쳐왔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 운동본부 한일기독교의원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KA) 등 교계 평신도 5단체로 구성돼 있다.

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축사를 통해 “CTS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국민일보도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국민일보와 CTS가 앞으로 협력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동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박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 교계 인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관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이외 시정자, 출연자, 후원자까지 모두 1000여명이

기쁨을 나눴다. CTS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역량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2013년 24시간 방송되는 종교채널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CTS는 1995년 86개 한국교회 개신교단이 연합해 세운 최초의 기독교 TV이다. 신앙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와 선교 프로그램 ‘7000 미라클’은 CTS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동성애와 이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 가고 있다.

선교의 창 (44)

비거주 선교 사역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오늘날 세계전쟁은 입체 작전이다. 전, 후방이 없다. 전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지에 거주하는 지상군만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거주 선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리슨(D. Garrison) 박사는 “비거주 선교전략은 세계 인구의 1/4에 달하는 미전도 부족의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장애물로 막혀 있는 국가나 부족에게 획기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비거주 선교는 세계선교 전략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축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간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

대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복잡 다양한 세상을 복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에 한 대안으로서 비거주선교사역을 전략적으로 거론하는 것이다.

이유인즉, 첫째는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사회 문화적 장벽이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또는 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에서는 선교사가 장기 거주하기 어렵다. 거주할 수 없는데 그 곳에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다.

둘째 선교의 편의성 요인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현대문명은 비거주선교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전 세계는 어디든지 하루

를 누구나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을 준다든가 의사나 약사라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이치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 무명으로서 비거주 선교사역을 하면 가치가 없고 정식 선교사의 신분으로 비거주 사역을 하면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선교현장의 질서와 효용성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선교와 비거주선교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거주 선교사(Nonresidential Missionary)에 대한 정체성

거주 선교와 비거주 선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거주 선교와 연계없는 독단적인 비거주 선교는 위험요소가 많다.
거주 선교와 비거주 선교가 함께 할 때 사역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졌던 비거주 사역은 어떠한가?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사역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바라보는 시각도 싸늘하다. 비거주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했다. 그 자적이나 동기 등도 의심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선교지의 물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말미암아 거주 선교사들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분야를 받쳐주는 선교신학이 미비했고 전략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거주 선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싸매야 한다. 나아가 이론적 바탕 위에서 비거주 선교사로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준비시켜 거주 선교사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면 한국선교의 에너지 누수현상과 거주, 비거주 사역자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이다.

만에 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정보 들을 수 있다. 이는 선교지와 거주지 간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세대들은 한 선교지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기보다 자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를 몇 개월, 몇 년 식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에게는 유동적 선교 패러다임이 훨씬 현실적이다. 앞으로는 비거주 선교(Non-residential Mission) 개념에서 멀티 거주선교(Multi-residential Mission)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비거주 선교와 비거주 선교사

비거주 선교와 비거주 선교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끔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는 선교활동을 비거주선교라고 부를 수 있어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비거주 선교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비거주 선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나 비거주 선교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전자는 한 자연인으로서 부담 없이 선교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러나 비거주 선교사는 공인된 정식 선교사이다.

비거주 선교사는 훈련과 행정 절차를 밟아 선교회에 가입해야 하며 선교 목표지역이나 사역이 분명해야 하고, 선교 대상에 대한 지식, 언어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한다. 이는 의료행위와 비슷하다. 옆에 병든 사람

비거주 선교사란 용어는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 리치먼드(Richmond)에 위치한 남침례 해외선교부의 선교연구팀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채택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 시대의 소사물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비거주 선교사란 누구인가? 비거주선교사는 선교지의 제약조건 뿐 아니라 추방 등으로 한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반드시 알려지지 않더라도 국내나 선교지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특정 민족, 이주자들을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비거주선교사라 부른다. 문제는 비거주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낮고 당사자 본인들도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비거주선교사가 되었는가? 현지에 들어가 장기 사역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인가? 혹은 미국의 길이 막혀 할 수 없이 비거주선교사가 된 것인가? 비거주선교사는 거주에 나 실패한 선교사가 차선책으로 하는 직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거주의 선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

비거주 선교사의 역할과 방향

서구 선교단체들 가운데 비거주선교사 개념이 좀 더 발전하여 '선교전

락조정가'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꼭 획일적인 필요는 없다. 비거주선교는 일반적으로 삶의 공유가 필요한 사역보다 리치터, 비즈니스, 훈련, 강의, 의료, 문서, 방송 등 단기간 효과를 보거나 꼭 삶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사역분야에 적합하다. 아무튼 효과적인 비거주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비거주선교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비거주 선교사는 첫째로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한 자연인으로서 선교에 참여하면 된다. 구직 공인된 선교사의 타이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로 공식적인 선교훈련과 행정 절차를 밟아 선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로 팀 사역을 해야 한다. 거주 선교사나 현지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협력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현지의 선교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비거주 선교사의 은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넷째로 사역의 보조역을 맡아야 한다. 비거주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무리하게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사역의 주도권은 거주선교사나 현지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주로 돕는 사역을 할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다. 믿고 의지할만한 현지인이나 현지선교사와 같은 동역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 비거주선교 사역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맺음 말

세계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다. 한 단체도 할 수가 없다.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결국 거주, 비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소명과 은사 그리고 준비됨을 따라 타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 사역의 속도감과 효율을 위해서는 거주사역과 비거주 사역이 함께 가야 한다. 거주사역과 연계 없는 비거주 사역은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비거주 사역 없는 거주사역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진행할 때 사역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우선순위에 비거주 사역은 거주선교가 대신할 수 없는 보완적 사역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세계종교 문화뉴스

테러 공포에 휩싸인 세계

온 세계는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벨기에에는 테러공포로 학교가 휴교하고 지하철 운행이 수일 동안 중단되었다. 11월 27일 파리시 광장에서는 130명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엄숙한 행사가 거행되었다. 지난 주(11월 24일경) 아리랑 뉴스는 한국 국민들의 70%가 한국사회도 테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테러가 결코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닌, 우리에게도 닥칠 재앙이다.

그러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테러의 원인을 종교적 차원에서 바로 말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심지어 기독교 지식인들조차도 식민지 논리, 사회적, 경제적 소외이론으로 얼버무린다. 26일 NHK의 IS테러해설도 같은 논리였다. 테러리스트들은 “불경건자들을 죽이러”는 코란에 정면대결한다. 온 세계는 이슬람 테러의 교리적 원인인 코란의 “칼의 본문”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회, 정치적 분석에 열중한다.

파리테러와 벨기에 테러공포 진원지 모렌베크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이민자들”

위 제목은 11월 26일 뉴욕타임지에 벨기에 이민자로 있다가 미국으로 간 모로코 출신 여 작가가 쓴 제목이다. 내용은 파리 테러범들은 벨기에 슬림프 모렌베크 출신이고 이들이 벨기에로 테러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광산노동자의 후손들이 이민자 다니는 학교는 거의 집단수용소학교(concentration school)로 전략, 벨기에인들은 다 철수함으로써 완전 슬림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부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대처하였다고 벨기에 정부를 비난하였다.

그녀의 글에 바로 항의하는 댓글이 함께 수록되었다. 한 아시아 이민자는 “우리는 벨기에에서 사회 적응에 문제가 없는데, 왜 모로코인들은 적응하지 못하느냐고” 또 다른 사람은 “적응을 실패한 책임은 자기 나라 기질을 탓하느냐, 테러범들은 교육받은 자들로, 이미 서구화된 자들”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슬람 문화는 모든 잘못이나 문제를 남의 탓에 달리는 습성이 있다. 벨기에에는 1964년 탄광개발을 위하여 모로코와 터키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폐광됨으로 이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이 사는 지역은 거의 슬림프가 된 모양이다.

그녀의 글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무슬림의 자세를 드러낸다. 한국 광부들의 독일 이민도 거의 동시대이다. 우리광부 후손들은 아무도 독일 슬림프에 사는 자가 없다. 그들은 독일에서 노동을 발판으로 하여 지금 더 좋은 노년을 누리고 있다.

비대칭의 전쟁

세계역사에서 여러 나라가 한 종교 집단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이 전쟁은 일본인 소장 이슬람 전문가 이케우치 사토시가 말한 대로 비대칭의 전쟁이다. 비대칭이란 연합 국가들은 자기 나라 기질을 앞세우는데, IS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검은 “종교깃발”을 들고 행군한다. 국적이 없다. 연합군은 시리아가 주 전쟁터인데, 테러집단들은 온 세계가 전쟁터이다. 연합국 병사들은 정규군인데, 이들은 비정규군이다. 연합국은 한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속히 종결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은 종말까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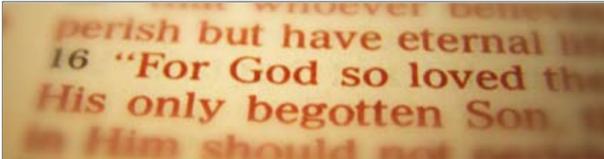
지난 11월 14일자 뉴스위크지에서 한 이슬람 전문가는 테러는 계속될 것이다. 공습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을 더 부추기고 지원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결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16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담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com</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kias.com</p>	<p>벤델교회</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7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유지, 유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edale, MA 01845</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com</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com</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kias.com</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i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월-토)</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복음서 이야기 (2)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

제 2화 유월절과 소년 예수

복음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신앙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이진 이적이거나 기사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주님의 심오한 말씀의 진리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 관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기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나마 이야기에서 유년기를 지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2:40)."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타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기 예수의 출생, 성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문제는 누가복음 2:41-50절에 기록된 말씀에 걸려, 솔직히 독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어떻게

부모란 사람들(요셉과 마리아)이 자기 아들의 실종 사실을 사흘 동안 몰랐을 수가 있던 말인가?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워온 맏아들 예수가 실종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진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지켜온, 명절 중 가장 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히브리어로 'Pesach'라고 발음이 되는 유월절 기간 동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베이킹파우더나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딱기가 심히 괴롭고 돌같이 딱딱한 밀빵과 쓴나물을 먹는다. 빵을 집에서 직접 구워 주식으로 먹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베이킹파우더나 이스트를 집안에조차 두지 말라고 가르친다(출12:19).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국내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지방으로 부터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평소 모야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먼 길도 떠나하지 않고 여행길에 오른다.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 오면 그렇잖아도 복잡한 수도 예루살렘은 수십만 명의 인파로 일주일 동안 인산인해를 이룬다. 엄청난 인파와 더불어 제물로 바쳐질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로 온 성내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파와 소음으로 몸살을 앓는다.

소년 예수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북쪽지방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60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예수의 가족뿐 아니라 나사렛 일원의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걷고 있었다. 딱기와 노약자들은 짐승을 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서 수백 명

본이었고, 도중에 여인숙이나 물이나 식량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고(있다고 해도 빠듯한 주머니 사정으로 온 가족이 며칠 동안 여인숙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광야에서 출몰하는 떼장도들, 인신매매범들, 노예상인들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일가친척, 이웃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어린 이들과 노약자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무리들이 걸어서 160여 킬로미터 광야 길을 여행한다고 생각해보라.

도보 여행 중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포레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도 치면서 부모들, 혹은 친척들 무리 속에서 함께 걸었다. 그러다가 밤이 늦으면 어른들은 친척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다가 아침이면 아이의 부모에게 인계도 한다. 12세 소년 예수도 그렇게 걸어서 160킬로미터의 장거리 여행길에 올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 후, 또 그렇게 친척과 이웃들 무리 속에 섞여 고향으로

은 엄청난 인파로 인해 금방이라도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조성된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 외곽, 안토니아 요새 병영에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가진 외지인들로 들끓은 유월절의 예루살렘에 감격스런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아켈라오(헤롯대왕의 아들)가 예루살렘 성전 뜰을 가득 메운 군중 사이로 가마병을 들신시켜 무력을 가시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아켈라오의 명을 받은 바빌로니아인, 트라키아인, 시리아인 용감한 순례자 약 3천명을 학살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왔다. 세 사람은 또 다른 반란을 막기 위해 출동한 로마군대가 예루살렘 외곽에서 반란에 가담한 유

예루살렘에 올 때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마리아와 요셉은 12세의 소년 예수가 또래 친척, 이웃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걸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젯밤 모닥불 옆에서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부부는 아집이면 아들을 만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 눈앞이 캄캄해진 부부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이 본 적이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한 부부는 한 번이 71미터나 되고 한번에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의 뜰'을 지나 그 넓은 성전구내를 살살이 뒤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성전에는 유월절 기간 1주일 동안 제물로 바쳐졌던 양과 염소의 피와 고기를 태운 냄새가 아직도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전 저쪽, 평소에 탐비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한 부부는...유대인 구약성경 학자들과

담담하게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12살짜리 영민한 아들을 목격하고는...



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장거리 여행은 도보가 기

대인들 2천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도 목격했다(Killing Jesus,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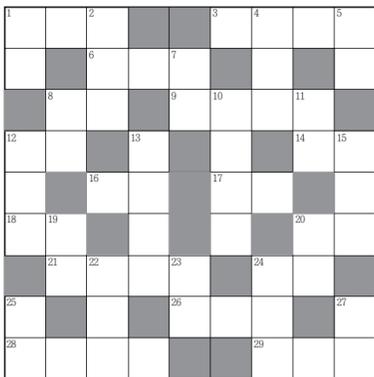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던 유월절 행사도 1주일 만에 끝났고, 나사렛 출신 유대인들은 또 다시 160여 킬로미터를 걸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들은 성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세금 수령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있었다. 고향에서 꼭 필요한 물품 구입부터 여행 도중 먹을 식량과 마실 물 구입까지 일종의 물품세를 납부해야만 성문을 빠져 나갈 수 있었다.

있는 회관에서 소년 예수의 목숨이 들쭉했다. 가까이 다가간 부부는 유대인 구약성경 학자들과 담담하게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12살짜리 영민한 아들을 목격하고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라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애타는 말에, 소년 예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다"였다.

이메일: parks@grace.edu

십자말 • Cross Word (108)

김기호 장로(본지 교분)



<가로 푸는 열쇠>

1. 문의 양편에 세운 기둥(겠43:8).
3. 잇사갈 지파에 있는 성읍(수19:19).
6. 가려서 뽑고...(사119:30).
8. 사계절의 하나, 무르익는...(잠20:4).
9.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하려 멀리 떠남.
12. 아셀 자손 헤벨의 아들이다(대상7:32).
14. 성마다. 여러 성(눅13:22).
16. 춤을 춤(사21:21).
17. 큰 바람(욥1:4).
18. 갓 자손(대상5:12).
20.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문(렘3:10).
21. 하나님의 축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24. 어떤 물체의 입구가 열리는 곳(단3:26).
26. 갓의 성읍으로 견고한 요새이다(사8:11).
28. 슬기롭지 못한...(고전15:36).
29. 스바와 함께 향 재료, 보석, 황금 등을 가지고 두로와 통상하였다(겠27:22).

<세로 푸는 열쇠>

1. 대답을 얻기 위한 물음(렘26:3).
2. 사람이 사는 집을...(렘9:19).
4. 너희 용들과 ○○○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8:7).
5. 숨이 끊일 때(히11:22).
7. 예수님의 족보 중 한 사람(눅3:28).
8. 예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창36:16).
10. 나아가는 순번에 따라(눅1:8).
11.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에서 다니시니(요10:23).
12.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 사람(느7:43).
13.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15. 고을을 드나드는 문(사9:35).
19. 안에 있는 대궐(겠41:3).
20. 오래되지 않은 동안(사29:17).
22. 땅의 경계를 표하는 돌(잠22:28).
23. 업신여겨어 욕보임(매12:4).
24. 배냐민의 셋째 아들(대상8:1).
25. 돌 가랑(겠13:19).
27. 애뜻하고 안타까운 정을 억누려 참고자 함을 뜻하는 말(잠13:24).

십자말 정답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30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탄구 남부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전 11:00, 7: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Tel: (031)977-3300-9, Fax: (031)977-8382 (주)110-831-0000 (주)1131-23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706-9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후 6:30 Tel: (02)2648-3181~3, (0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토요일) 새벽(11:00)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백령동로 17길 29(감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투고간증

전행복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재학)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를 입학하기 전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는 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뉴욕까지 와서 신학교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년 전 제가 10살 때, 북미 이민의 꿈에 부풀어 있는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가족 4식구는 아무 준비 없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막상 이민을 와서 보니 꿈과 현실은 전혀 달랐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혜택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고 영어를 못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인종 차별을 받으시면서 힘든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6학년을 다녔는데 저희 반에는 동양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저를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고 또 교회에서 아이가 3명이나 있는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형편이 안 좋은 집에서 저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저를 더 힘들게 하였고 나만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내 방마저 새 동생들에게 나누어줘야 해서 불만으로 가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저와 동생을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잘해주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교회에 나왔지만 조금씩 단련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점점 내적 치유가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어 제 주변 환경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M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있던 저를 만나주셨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청년들의 리더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왔으며 토론토 코스타 및 GKYM 선교대회에서 진행팀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1.5세, 2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고 겪었으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생활을 하여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느새 제게 북미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으라 하였고, 차세대 사역을 하라는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친히 만나 주셨고 또 저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 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만들어 가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GKYM 선교대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12년 결혼을 한 후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추천과 권유로 동부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참된 복음의 일꾼 되길

럼 취급하였고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이민 생활을 통해 우리가족이 얻은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힘든 생활로 지친 어머니는 어디론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민을 와서 받은 문화 충격과 깨진 가족에게서 오는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사춘기에 찾아온 나의 정체성의 문제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가족도 없었고 위로와 사랑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못살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였고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원망과 화로 가득 차있는 저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점점 불량스럽게 변화였고 학교도 포기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 어디론가 도피하기 위하여 약이나 다른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였

믿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황하고 꿈과 비전이 없던 1.5세의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상처 받은 맘을 치료하셨고, 모난 성격들도 조금씩 다듬어 가셨습니다. 공부로 다시 시작했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했던 삶 대신에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교회 내외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영적 멘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저를 몇 번이나 주님은 부르셨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알았으나 쉽게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교회로 인도

혁장로회신학교에 2013년 1월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장 장영춘 목사님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신학교에 나오셔서 학생들을 자제하게 살피시며 사랑으로 기도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감 이규본 목사님은 어두운 시대에 참다운 주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되었고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바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thomaschun@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삼상17:41-43)

어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

함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쥐야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사울왕과 백성들처럼 별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가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험박이나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심하게 저주하고 험박을 해도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갑니다.

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삼상17:43-44)

골리앗이 핏대를 세우면서 “누구 안 나오냐?” “한번 볼자!”고 하는데 조그만 소년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원문에 보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내가 개냐? 나를 개 취급을 하느냐?”며 온갖 욕을 퍼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빌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냥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도 심하게 공격을 당하

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남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사회와 미국과 온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참고 섬겨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고 돌이켜 전진하는 것입니다.

수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삼상17:45)

오늘 또 한가지 우리가 항상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4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를 비교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하는 이 소속의식만 분명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소속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세상의 무기(돈, 건강 등등)를 보고 놀라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의식을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그대로 크게 보느냐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침체된다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크

게 높게 보는 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흥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24시간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분은 오늘도 아무 두려움 없이 언제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삼상17:46)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싸우느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만 승리한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조건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지금 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지 가 확실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17:47)

본문에서 다윗의 목적은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적군까지도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세상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잘돼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기고 지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

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자녀들의 행복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문번역성경(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인/터/뷰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지성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지성소가 무엇인지는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알고 있는 용어지만 “지성소 예배”라는 말은 생소하다.

“지성소”는 구약시대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성막에서 설명된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죄인 된 인간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물두멍에서 씻어지며, 성소등대에서 빛을 받고 빵을 먹고 향을 피우며 양의 피를 덧입어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성전(성막)은 거둔단 성도의 몸으로 비유되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죄인 된 인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십자가에서 죽으신 예



유태웅 목사

유일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루게 되며 감성과 치유와 회복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교제다. 찬양과 기도로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유 목사는 “여기서 나는 인도자 일 뿐 하나님(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합니다. 교인 스스로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

비하고 있다. 초안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도자의 영성이 필요하다. 또 받쳐주는 사람은 음악적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개월간 4, 5회의 집회를 가졌는데 담임목사들의 반응이 좋다. 지성소 예배의 장점은 교인이 많고 적응이 상관없다. 음악적인 부분의 비어있는 것은 그 교회 찬양팀을 활용해서 연습하면 된다.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해 그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자가 음악을 못해도 된다.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훈련시켜 성도들을 지성소로 안내하는 것이다. 담임목회자의 찬양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고 유 목사는 강조하면서, “지성소 예배” 임상실험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목회자와 교인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성령께 맡기는 예배...인도자는 음악 못해도 돼
개인이 살아날 때 교회 부흥...인도자 매뉴얼 준비중

수님과 함께 죽고), 물두멍에서 씻어지며(회개) 성소 등대에서 빛(성령)을 받고 빵(말씀)을 먹고 향(기도)을 피우며 양의 피를 덧입어(대속) 휘장(육체)을 찢고 지성소(하나님과 하나 됨)로 들어간다.

이런 면에서 “지성소 예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면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 보며 직면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영적 찬양 예배”를 의미한다.

“지성소는 시대의 모든 예배를 생명의 길로 만들어가며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자리에 어느 누구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는 설명한다.

그러면 왜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며 예배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유 목사는 말한다. “중요한 건 개인이 살아날 때 교회 부흥의 동력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유 목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 년에 한번이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며, “지성소 예배는 구약의 개념이지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교제가 안에서 모두 이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휘장을 찢고 만나라고 하셨는데 만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제사장이 죽기를 각오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즐기다가만 간다는 것.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일대일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지성소 예배는 세 챗터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찬양인도자가 준비한 것을 보여준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찬양과 아울러 간증 등의 신앙고백을 한다. 두 번째는 지성소 예배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시간은 25분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찬양과 영상과 함께 설명한다. 세 번째 챗터는 하나님과의

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까지는 인도자가 인도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예배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찬양사역자들이 집회하러 오면 자신의 찬양곡을 발표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된다. 찬양사역자에 따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한다. 찬양사역자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유태웅 목사도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집회를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온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 인도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찬양사역자의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예배는 인도자가 찬양을 잘 못하고 악기를 못 다루도 할 수 있지요. 인도자는 길을 안내하고 그 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뒷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유 목사는 인도자 매뉴얼을 준비

△이러한 찬양예배는 교회와 연속 집회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성도들의 즉각적인 변화에 가장 놀랐다. △예배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지 않았던 나에게 전체적인 예배가 그려졌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걸 알게 된 예배였다. △성경에서 늘 암송하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느끼게 됐다. △지성소 예배가 패턴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찬양예배를 접하게 됐다.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집회이다.

지성소 예배 초청이나 문의는 유태웅 목사가 운영하는 라이프라인미션 웹사이트(www.nyilm.org)를 활용하거나 (646)258-4161로 전화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기도/칼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목회자로서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진실한 영혼 사랑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나는 단지 나무를 사랑하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무를 심는 것처럼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으며 양육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울음장창, 울창한 숲의 나무를 좋아한다. 큰 나무들, 거목이 되어 숲을 이룬 아름다운 나무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때마침 광야나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땅을 갈고 나무를 심고 힘들어 키우는 일에는 인색하다. 어쩌면 목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수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큰 꿈은 누구나 가지지 쉽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 한 영혼을 식목하고 그 영혼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며 물주고 가꾸는 목양은 그리 쉽지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 같은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나무를 심으시고 거대한 구원의 숲을 이루셨다. 지금도 황량한 들과, 예배가 없는 거친 광야에 생명의 나무를 심으신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심으신다. 복음전파, 세계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세상에 의의 나무를 심어 뾰족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꿈을 가지되 한 영혼을 품고 나무를 심고 싶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싶다. 주님 오시는 날, 우거진 푸른 숲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영혼을 나무 심듯이 사랑하고 싶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61:3).

이메일: bible66@gmail.com

세계종교 문화뉴스

(13면에서 계속)

“피는 계속될 것이다. 파리와 이슬람 테러리즘의 미래”(There Will Be Blood: Paris and the Future of Islamist Terrorism) By Kurt Eichenwald 11/14/15 at 8:21 PM

파리테러는 이미 계속 증가하는 테러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다만 테러리스트들은 식당, 콘서트, 종합운동장,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하기 쉬운 곳을 골라 대량 살상을 노렸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곳은 제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을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이슬람 테러그룹은 IS만이 아니라 하카니, 하마스 그룹 등 많은 조직들이 대원들을 경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파리 테러에서 배울 교훈은 지하디스트들은 이미 반테러전문가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프랑스 풍자만화가 찰스 에브도 살인사건에서 저들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테러에 더 관심을 가졌다.

미 의회 분열도 전략중의 하나? 이들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작전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공격을 더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를 whitewasher-in-chief로 비난한다.

서구 정치가들은 이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본다고 감먹고 도망갈 자들이 아니다. IS는 철학을 퍼뜨리고 있다. 공중폭격으로 다 괴멸시킬 수 없다. 이유는 이들은 시민들과 격리된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라파 무슬림들은 적이 아닌, 이웃시민이다. 그들도 희생자이며, 피해자이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MBA 경영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